

IBK가 만드는 중소기업 CEO REPORT

대한민국 유일의 중소기업 CEO를 위한 경제·경영 전문지

CEO 인터뷰

노정덕 (주)KEM 대표이사

공작기계 관련 제품으로 글로벌 초일류 기업을 꿈꾸다



유수분리기^{Oil Skimmer}
수용성 절삭유 관리를 위한
필수품으로 제조원가 절감,
가공 정밀도 개선 효과가 있다.

November

Vol
212

2022

SPECIAL THEME

IRA,
특인가 실인가?

P.04

ESG ACADEMY

세계를 바꾸는 ESG
주요 국가별 대응 방향

P.22

COMPANY CHALLENGE

고객 불만은
위기 극복의 기회

P.30

COMPANY SOLUTION

챙겨야 할 2023년
고용노동부 예산안 주요 내용

P.46

CONTENTS

2022. November. Vol_2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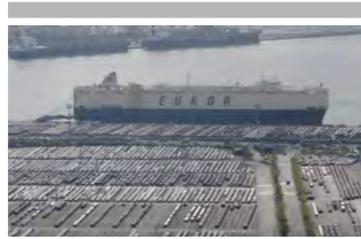
01_시론

중소기업 금융실태조사 결과를 보며

02_COMPANY POLICY

중장년층의 창업을 응원합니다

중장년기술창업센터



04 Special Theme

IRA, 특인가 실인가?

- ① IRA의 속내와 우리의 대응
- ② 미국 IRA의 국내 산업 영향과 과제
- ③ 상중고에 대한 미국 IRA, 중소기업에 미칠 영향과 대응



16 CEO Strategy

노정덕 (주)KEM 대표이사
공작기계 관련 제품으로
글로벌 초일류 기업을 꿈꾸다

28 Venture Biz

IBK창업인 ① 라온버드 천세욱 대표

IBK창업인 ② 지엔조영민 대표



22_ESG ACADEMY

세계를 바꾸는 ESG, 주요 국가별 대응 방향

26_IBK EXPLORING

IBK가 만난 이달의 기업들

30_COMPANY CHALLENGE

고객 불만은 위기 극복의 기회

32_FUTURE REPORT

탄소중립과 폐기물 저감을 위한
바이오플라스틱

34_TRADE GUIDE

물류 산업으로 재도약 꿈꾸는 홍콩

36_POLICAST

對세계 공급망 재편 대응으로
확대되는 소부장 정책

38_ECONOMIC REVIEW

한눈에 읽는 경제 동향

42_INDUSTRIAL ESTATE

세계적인 종합석유화학공업기지
여수국가산업단지

46_COMPANY SOLUTION

챙겨야 할 2023년 고용노동부 예산안 주요 내용

48_TAX FOCUS

국외전출자 국내 주식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제도

50_CEO OPINION

상호 존중·칭찬·친화 경영 통해
시너지를 극대화하라

52_IBK POLICY

M&A 중개·주선도 IBK와 함께

시론



IBK경제연구소 소장

부행장 조봉현

중소기업 금융실태조사 결과를 보며

IBK기업은행은 4,683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2년 중소기업 금융실태조사' 결과를 최근에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의하면, 2022년 중소기업의 76.7%가 경영 상황이 전년과 동일하거나 부진할 것이라는 응답을 보였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은 시설자금보다는 운전자금 중심으로 자금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올해 자금 수요가 증가할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23.1%로 지난해(14.5%)보다 8.3%포인트 높아졌다.

자금 수요가 증가한 이유(복수 응답)로는 '구매대금 지급'이 80.4%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그다음으로 '인건비 지급'(51.3%), '원리금 상환'(20.6%) 등의 순이다. 반면 '설비투자'로 인한 자금 수요 증가라고 응답한 비율은 9.0%에 불과했다. 하지만 중소기업이 현장에서 느끼는 자금조달 여건이 여의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 금융실태조사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지난해 중소기업은 신규 자금을 은행에서 조달한 비중이 58.4%로 은행 의존도가 매우 높은 편이다. 그런데 중소기업은 은행 대출 시 불편사항으로 '높은 금리 수준'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45.6%로 나타나 최근 금리 상승에 따른 어려움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복잡한 서류·대출 절차'(24.8%), '대출한도 부족'(22.9%), '담보 부족'(11.0%) 등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건의사항으로는 금리인상기를 맞아 대출금리 인하를 원하는 중소기업이 많아지고 있으며, 대출한도 확대, 대출 조건 완화뿐만 아니라 수출 기업에 대한 지원, 환율 관련 지원책도 확대되기를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이 지속됨에 따라 경영 위기에 봉착할 중소기업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경영 정상화 및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할 것이다. 특히 일시적 어려움으로 '돈맥경화'에 빠지는 중소기업이 없도록 세밀히 살펴봐야 할 것이다. 

발행일 2022년 11월 1일(통권 제212호)

등록번호 서울중 라 00429

발행인 윤종원

편집인 조봉현

발행처 IBK기업은행(www.ibk.co.kr)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79(을지로2가)

Tel 02-729-6520

Fax 0505-077-0850

기획 IBK경제연구소

편집·디자인·제작 한국경제매거진㈜

인쇄소 ㈜교학사

문의 02-360-4816

※(IBK가 만드는 중소기업 CEO REPORT)의 저작권은 IBK기업은행에 있습니다. IBK기업은행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이 책에 실린 모든 글과 그림, 사진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비매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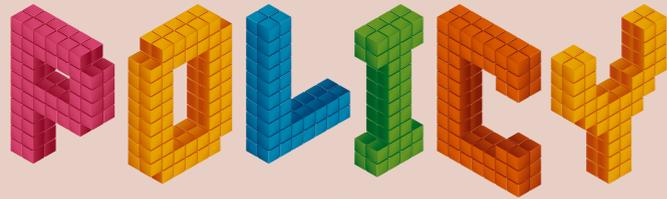


찾아는 이메일 서비스
구독 신청



〈중소기업 CEO 리포트〉
자번호 보기

Company



이달의
중소기업
지원정책

중장년층의 창업을 지원합니다

중장년기술창업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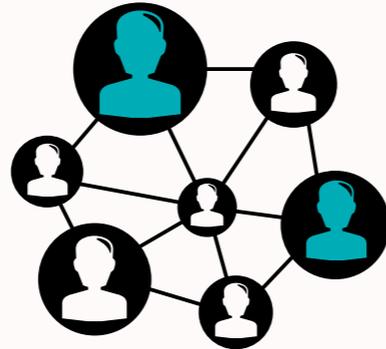
중장년기술창업센터는 경력, 네트워크, 전문성을 보유한 중장년(만 40세 이상) (예비) 창업자의 기술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창업 교육 및 거점을 지원하는 곳으로, 창업 교육부터 공간 지원, 보육 지원까지 원스톱 창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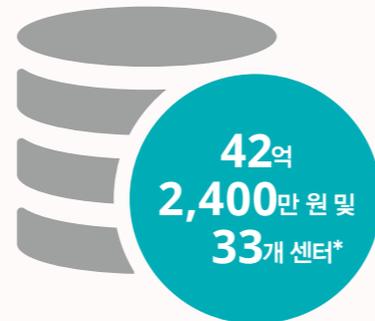
지원 대상

만 40세 이상의 중장년 (예비) 창업자



02

지원 예산 및 규모



* 서울, 경기, 인천, 부산, 울산, 대구, 경북, 광주, 전남, 대전, 충남, 강원, 충북, 전북, 경남, 제주 등 33곳에서 센터를 운영 중이다.

03

지원 내용

숙련된 경험과 네트워크를 보유한 중장년을 발굴해 원스톱 One-stop 형태의 창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 ✓ 발굴 대기업, 공공기관 등 (예비) 퇴직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창업 교육 및 설명회를 실시하고, 기술, 경험, 직무 역량이 있는 중장년을 창업 생태계로 유도한다.
- ✓ 창업 교육 중장년 창업 역량을 높이기 위한 실전 창업 교육과정을 각 센터별로 운영해 창업준비기 중장년의 창업 역량을 강화한다.
- ✓ 공간 지원 입주 및 코워킹, 네트워킹 공간을 제공해 다양한 교류를 통한 중장년 창업 분위기를 조성하고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지원한다.
- ✓ 보육 지원 중장년 (예비) 창업자에게 네트워킹 행사, 멘토링, 경영·마케팅, 사업화 연계 지원 등을 통해 창업 성장을 지원한다.

04

사업 절차



05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신청 방법

전국 33개 중장년기술창업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K-스타트업 홈페이지(www.k-startup.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접수한다.

* 센터별 모집 일정에 따라 교육생, 입주 기업 등 모집기한이 상이하므로 K-스타트업 홈페이지 참조.

필요 서류

- ✓ 예비 창업자 입주신청서, 활동계획서, 대표자 이력서(자유양식) 등 각 1부
- ✓ 창업자 입주신청서, 사업계획서, 대표자 이력서(자유양식) 등 각 1부

06

문의처



창업진흥원 창업인프라조성실
☎ 044-410-1922·1929·1931

K-스타트업 홈페이지
www.k-startup.go.kr

정책정보는 기업마당 홈페이지
www.bizinfo.go.kr ☎ 1357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
www.mss.go.kr, '2021년 지원시책' 참조

IRA, 득인가 실인가?

지난 8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기후변화 대응과 의료 보장 확충, 대기업 증세 등을 골자로 한 '인플레이션 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 IRA)'에 서명했다. IRA의 실시 배경과 이 법안이 국내 경제와 기업들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본다.



미국 'IRA 법안' 주요 내용

기후



2030년까지 온실가스 40% 감축
에너지 안보 및 기후변화 대응에 3,690억 달러(약 479조 원) 투자

- 친환경 에너지 발전에 600억 달러 세액공제
- 풍력·태양광에 300억 달러 지원
- 전기자동차 구매 시 신차는 최대 7,500달러, 중고차는 최대 4,000달러 세액공제

- 중국 등 우려 국가에서 생산된 배터리 핵심 광물을 사용한 전기차 제외
- 북미에서 조립·생산
- 배터리 핵심 광물의 일정 비율 이상을 북미에서 생산

의료



- 공공 건강보험인 메디케어에서 노인의 본인 부담금을 연간 2,000달러로 제한
- 1,300만 명이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보조금 지급 연장

세금



- 연간 수익이 10억 달러 이상의 기업에 최소 15% 법인세 부과
- 자사주 매입 기업 1% 과세

자료 AP통신

IRA 수혜 대상 국가 및 기업



포드(4), 링컨(2),
지프(2), 크라이슬러(1),
리비안(3), 루시드(1)



메르세데스-벤츠(1),
BMW(3), 아우디(1)



볼보(1)



닛산(2)



없음

주 ()는 모델 수 단위 대 자료 미국 에너지부

미국 내 전기차 판매 현황



주 2022년 상반기 기준 단위 대 자료 한국자동차연구원

미국 소비자물가 추이



주 전년 동월 대비 단위 % 자료 미국 노동부

SUMMARY

- ① IRA의 속내는 미래 첨단 산업에서 중국의 공급망을 철저히 배제하는 것
- ② 미·중 무역분쟁의 흐름 속에서 지속 가능한 성장 유지 위한 넓은 시야와 빠른 결단이 필요



홍지상 국제무역통상연구원 연구위원
 뉴욕주립대 기술경영학 석사학위를 받았으며, 현재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 동향분석실에서 다양한 연구를 하고 있다.



IRA에 서명하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미 대통령이 지난 8월 워싱턴DC 백악관에서 기후변화 대응과 의료 보장 확충 등을 골자로 한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서명하고 있다.

IRA의 속내와 우리의 대응

'인플레이션 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 IRA)'은 물가를 잡겠다는 이름과 달리 주요 목적은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중국을 견제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물가 상승 완화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비판을 감수하면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기후변화 대응 정책을 펼치는 이유는 무엇일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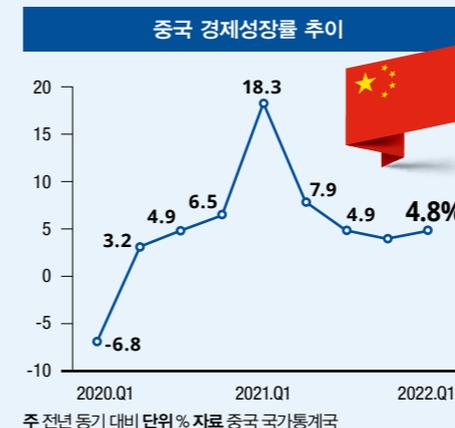
지난 8월 미국 IRA 법안 발효 이후 국내 자동차 기업들의 미국 전기자동차 시장 공략에 비상이 걸렸다. 이번 IRA의 핵심은 '북미 지역에서 최종 조립된' 차량만 세액공제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는 점인데, 아이오닉5, EV6 등 국산 전기차 모델의 경우 현지 생산 없이 전량 한국에서 생산한 후 납품되고 있어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이다. 현대자동차가 빠르면 2025년 상반기부터 조지아 전기차 공장을 가동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IRA가 유예기간 없이 즉시 발효된 만큼 적어도 약 2년 동안 국산 전기차 미국 시장에서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심지어 내년부터 보조금 조건이 더욱 까다로워진다. 2023년 1월부터 배터리 용 핵심 광물의 40%, 배터리 부품의 50% 이상을 미국 혹은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국가로부터 조달하지 않으면 세액공제 대상에서 배제된다. IRA는 매년 이 비율을 점차 높여 가며 2028년에는 광물의 80%, 부품의 100%를 요구하고 있다.

IRA는 첨단 산업 공급망에서 중국을 배제하기 위한 미국의 노림수

IRA는 법안 제목부터 '인플레이션 감축'을 강조하고 있지만, 사실 법안명 자체는 미국의 속내와 거리가 멀다. 바이든 행정부와 민주당은 이번 IRA의 모태였던 '더 나은 재건법(Build Back Better Act, BBBAA)'이 증세 부담과 인플레이션 우려로 번번이 무산되자 일부러 인플레이션 완화를 내세워 법안명을 개정했고 극적으로 합의 도출에 성공했다. 결과적으로 이번 IRA는 기존

BBBA 법안에 비해 내용 면에서 상당히 축소되었지만, 향후 10년 동안 총 7,390억 달러의 재원을 확보해 이중 약 60%의 예산을 전기차와 관련한 에너지 안보와 기후변화 대응, 헬스케어 지원 등에 대규모로 투자할 예정이다. 한화로 치면 1,000조가 넘는 어마어마한 금액이다. 하지만 '인플레이션 감축'이라는 표면적인 이유와 달리 미국이 IRA를 통해 궁극적으로 노리고 있는 것은 미래 첨단 산업에서 중국의 공급망을 철저히 '배제'하는 것이다. 미국은 이번 기회에 전기차 보조금 요건을 담보 삼아 글로벌 자동차 기업들이 미국에서 시설투자를 확대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당장 중국의 의존도가 높은 배터리 소재와 부품에 대해서도 자동차 기업들이 점진적으로 미국 중심으로 공급망을 다변화할 수 있도록 유도하면서 전기차 시장의 패권을 자연스럽게 가져가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테슬라, 제너럴모터스(GM) 등 미국에 기반을 둔 미국 자동차 기업들은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 경쟁력과 안정적인 공급망을 바탕으로 전기차 시장에서 영향력을 확대할 기회도 얻은 셈이다.



첨단 기술패권 전쟁으로 확산되는 미·중 무역분쟁

이렇게 미국이 중국을 끊임없이 견제해 온 이유는 근본적으로 중국의 경제 규모가 미국을 위협할 정도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중국의 경제 성장 동력이 크게 약화된 했지만, 지난해 기준으로 중국은 이미 미국 국내총생산(GDP)의 70% 수준으로 따라붙었고, 글로벌 전망기관들도 대체로 2030년을 전후로 중국의 경제 규모가 미국을 추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GDP의 성장은 단순히 규모의 성장만이 아니라 주변국에 미치는 영향이 더욱 커지고 세계 경제의 주도권을 가져온다는 것을 의미한다. GDP가 커질수록 주변국과의 경제적 이해관계와 편익이 발생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미국이 세계 경제의 주도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유력한 경쟁자인 중국을 견제할 수밖에 없다. 우리가 미·중 무역분쟁을 '패권전쟁'으로 표현하는 것도 이러한 GDP의 성장과 크게 무관하지 않다. 최근 미국과 중국의 패권 전쟁은 국가 안보와 기술패권 전쟁의 명목 아래 더욱 첨예한 대립



***국가안보전략 보고서**

미국의 의지와 정책 방향성에 대해 살펴볼 수 있는 보고서로 최근 발표한 미국의 국가안보전략 보고서에는 미국의 전략적 경쟁자는 러시아와 중국이라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을 예고하고 있다. 미국은 올해 10월 12일 '국가안보전략(National Security Strategy) 보고서*'를 발표하며 중국을 아예 공식적인 최대 경쟁국으로 지정했으며, 앞으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서라도 중국과의 기술 격차를 벌려 글로벌 패권을 유지하겠다는 공격적인 의지를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미국의 날선 공격이 이어지자 미국과 깊은 이해관계를 가진 기업들은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 실제로 네덜란드의 대표적인 반도체 장비 기업인 ASML은 최근 미국 상무부의 대^중중 반도체 공정 장비 제재 정책에 따라 중국 현지 랩에 근무 중인 자사 직원들을 모두 철수시키기로 했다. 반도체 등 전문 영역에서 숙련된 인력이 빠져나갈 경우 단순히 제품이나 기술이 유출되는 것보다 더욱 심각한 타격이 예상된다. 특히 반도체의 경우 수많은 테스트 공정(Trouble Shooting)을 시행할 인력이 없어질 경우, 추가적인 연구·개발(R&D)에 대단히 치명적이기 때문이다.

미국은 앞으로도 중국에 대한 공급망 의존도를 줄이고 동맹을 규합해 중국에 대한 견제 수위를 높일 전망이다. 기업 차원에서도 팬데믹 이전부터 미국 정보기술(IT) 기업을 중심으로 '탈중국'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었다. 미·중 무역분쟁 과정에서 구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등 굴지의 IT 기업들은 중국 생산라인을 대만,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시아 지역으로 이전하고 있다. 해당 기업들이 탈중국을 선택한 이유는 업종별로 상이하나, 대체로 미·중 무역분쟁이 격화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관세 인상, 원산지 제재 등 불확실성을 미연에 방지하거나, 중국 일변도의 공급망 리스크를 해지하기 위한 시도로 보인다. 중국의

인건비가 상승하거나 현지 수요가 변화한 것도 일부 요인으로 지목된다.

공급망 재편으로 급변하는 통상 환경, 우리의 대응

글로벌 공급망의 재편과 미·중 무역분쟁의 흐름 속에서 우리 경제가 중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넓은 시야와 빠른 결단이 필요하다. 먼저 미국 등 서방 국가들의 대중국 견제로 파생될 수 있는 공급망 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비해야 한다. 미국을 포함한 서방 국가들의 대중국 견제 수위가 날로 높아지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우리나라의 수입 공급망은 상당수 중국에 편중되어 있다. 최근 3년간 데이터를 기준으로 우리나라 전체 수입 HS코드 중 대중 수입 의존도가 가장 높은 HS코드 수는 총 3,225개에 달하는데, 2021년 기준으로 대중 수입 의존도가 70%를 상회하는 '취약품목'은 총 397개로 추산된다. 이러한 취약품목의 개수는 전체 HS코드 수의 3.5%에 불과하지만, 수입금액 기준으로는 무려 23.6%를 차지하고 있다. 대략 전체 대중국 수입액의 4분의 1 정도가 단일국 수입에 의존하는 취약한 품목에 해당한다.

따라서 중국 수입 의존도가 높은 수입 품목에 대해 수입선을 다변화하고 정책적으로 국산화를 적극 장려함으로써 중국 수입 공급망 차질에 따른 구조적인 불확실성을 최소화해야 한다. 나아가 전기차와 같은 미래 핵심 산업을 중심으로 꾸준하게 공급망 수급처를 다변화하고, 국제통상 현안으로 부각될 수 있는 경제 안보 핵심 품목에 대해 정부가 재고 비축량을 최대한 확보할 필요가 있다. 특히

2차전지용 수산화리튬과 같이 85% 이상 중국에 수입을 의존하는 품목에 대해서는 기업들이 과감하게 현지 투자에 나설 수 있도록 정책적 뒷받침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과거 일본 수출 규제와 요소수 사태에서 경험했던 것처럼, 특정 품목 수급에 문제가 생기면 정부와 민간이 하나가 되어 일사분란하게 대응할 수 있는 정교한 매뉴얼과 소통 창구를 마련하는 것도 필수적이다.

또한 경제 안보 측면에서 대외적으로 개방적인 통상교섭 입장을 고수하되 실리에 기반한 균형 있는 외교적 노력이 요구된다. 미·중 무역분쟁의 사례에서 확인한 것처럼 서방 동맹 국가와 중국·러시아 간의 진영 대립이 블록화되면서 경제 안보 측면에서 다층적 국제통상 질서가 형성되고 있다. 세계무역기구(WTO)의 다자무역체제가 점차 영향력을 잃어 가면서 미국, 유럽연합(EU) 등 주요 선진국들은 양자 협정을 통해 자국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는

경향도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우리 무역은 개방적인 자유무역의 가치를 유지하고 균형 있는 외교를 바탕으로 실리적 노선을 지속적으로 견지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는 현재 수출 상위 20개국 중 멕시코와 러시아를 제외한 18개국과 FTA를 발효해 이미 상당한 수준의 자유무역을 실현한 상황이지만, 올해 4월 가입을 신청한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논의에도 협상 초기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참여해 국내 실정에 부합하는 실리적인 협상 결과를 이끌어낼 필요가 있다. 미·중 교역 의존도가 37%에 달하는 우리 무역의 현실을 고려해 미·중 무역분쟁의 항방에도 중립적으로 대응하되, 한쪽을 위해 다른 한쪽을 포기하는 선부른 선택은 지양해야 한다. 단기적으로 많은 이해관계가 상충하더라도 어디까지나 균형의 묘(妙)를 발휘해 장기적으로 명분과 실익의 두 마리 토끼를 놓치지 않는 유연한 대응이 꼭 필요하다. 📌

가공단계 및 품목별 대중국 취약품목 개수 및 수입액(2021년 기준)

MTI분류 (1단위)	1차산업		반제품		부품·부분품		자본재		소비재		총계	
	개수	금액	개수	금액	개수	금액	개수	금액	개수	금액	개수	금액
화학공업제품	2	10	84	64.5	-	-	-	-	1	0.3	87	65.8
농림수산물	10	44	12	2.6	-	-	-	-	53	14.8	75	21.8
전자전기제품	-	-	13	9.6	8	21.7	32	109.9	17	12.7	70	153.8
생활용품	-	-	20	9.2	-	-	9	6.9	34	16.5	63	32.7
섬유류	-	-	20	5.7	-	-	-	-	14	6.0	34	11.7
철강금속제품	-	-	28	23.2	-	-	-	-	-	-	28	23.2
기계류	-	-	-	-	3	1.5	8	2.7	4	2.1	15	6.3
플라스틱고무 및 가죽제품	-	-	7	1.5	3	1.0	-	-	1	0.4	11	2.9
광산물	6	15	4	6.3	-	-	-	-	-	-	10	7.8
잡제품	-	-	3	0.8	-	-	-	-	1	0.4	4	1.2
총계	18	69	191	123.5	14	24.2	49	119.5	125	53.1	397	327.1

주 취약품목은 HS코드 10단위 기준 2019~2021년 연속으로 △대중국 수입 의존도 1위 품목(3,225개)이면서 △대중국 수입 의존도 70% 이상, △대중국 연간 수입액 500만 달러 이상, △대세계 무역수지 적자 등 4개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는 품목을 의미. 대중 수입 중 취약품목 수는 3.5%에 불과하나 금액 비중은 23.6%에 달함
단위 개·억 달러 자료 한국무역협회

SUMMARY

- ① 세계 혜택 불이익으로 국내 자동차 업계 미국 전기차 시장 가격 경쟁력 상실 위기
- ② 배터리 관련 규정으로 2차전지 산업 미국 시장 매출 감소 우려



황경인 산업연구원 시스템산업실 부연구위원
 대한상공회의소 조사본부 과장, 쉐르네 연구원 등을 지냈으며 주요 연구로는 '한국의 GVC 참여구조와 코로나19 이후 수출회복 영향 분석' 등이 있다.



전기차 세액공제 스톱 미국 IRA로 인해 국내 자동차 산업은 미국 전기차 시장에서 가격 경쟁력을 상실할 위기에 처했다. 국내 자동차 업계는 IRA에 따라 7,500달러 상당의 세제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불이익을 당하게 되었다.

미국 IRA의 국내 산업 영향과 과제

지난 8월 16일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 IRA)'이 조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 직후 즉시 발효되었다. IRA는 미국 내 투자 및 생산 확대, 이른바 바이아메리칸(Buy American)의 정책 기조 속에서 미국 중심의 공급망 구축까지도 의도해 제정된 측면이 있어 우리 산업계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IRA는 총 4,370억 달러 규모의 정부 재정을 투입해 미국 내 인플레이션 억제와 기후변화 대응을 목적으로 제정한 법이다. IRA의 법안 구조를 들여다보면 먼저 지출 측면에서는 전체 예산의 84%에 이르는 3,690억 달러의 재정이 에너지 안보 및 기후변화 대응 부문에 책정된 점이 눈에 띈다. 미국의 기후 대응 리더십 회복과 자국 내 투자·생산 확대를 통한 에너지 안보를 강화해 물가 급등 문제를 해소

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법안 구조상 수입 측면에서 살펴보면 IRA는 세입을 약 7,370억 달러 이상 규모로 확대해 재원 마련은 물론 재정적자 문제를 해소하는데도 기여하겠다는 의도가 엿보인다. 이를 위해 대기업을 대상으로 15%의 최저 법인세를 부과하고 미국 국세청의 과세 집행을 강화하는 등의 계획을 법안 내용에 담았다. 우리 입장에서 가장 눈길이 갈 수밖에 없는 내용은 바로 전기자동차 세액공제 규정이다. 미국은 자국에서 판매되는 전기차에 대해 세액공제(사실상의 보조금 효과) 혜택을 주고 있었는데, 이번 IRA에는 과거에 없던 새로운 조건들을 추가했다. 이러한 전기차 세액공제 변화는 우리의 주력 분야인 자동차 및 2차전지 산업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IRA에 규정된 전기차 세액공제 조건을 간략

히 설명하면 먼저 최종 조립(Final Assembly)* 조건이 있다. 이 조건은 북미에서 최종 조립이 이루어진 전기차에만 세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한 규정이다. 여기에서 북미는 미국, 캐나다, 멕시코 3개국을 말하며, 최종 조립 조건은 IRA 발효 직후인 8월 16일부터 적용된다. 따라서 지금 이 순간에도 북미 지역에서 최종 조립되지 않은 전기차는 미국 시장에서 세계 혜택을 받을 수 없다. IRA는 최종 조립 조건과 더불어 전기차에 탑재되는 배터리와 관련해 2가지 조건을 더 두었다. 첫째는 전기차에 대한 세계 혜택을 받으려면 배터리에 내재된 핵심 광물(예: 니켈, 망간, 흑연 등)이 일정 비율 이상 미국 또는 미국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에서 생산(추출, 처리, 재활용)된 광물이어야만 한다는 조건이다. 둘째는 전기차에 탑재된 배터리 부품도 일정 비율 이상이 북미에서 조립된 부품이어야만 미국 시장에서 세계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규정이다. 배터리 관련 두 조건들은 올해가 아닌 내년부터 적용된다. 종합하면 앞으로는 북미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 아니면, 그리고 일정 비율 이상의 광물과 부품이 북미 등의 지역에서 생산된 배터리를 사용하지 않으면 총 7,500달러 상당의 세제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다.

IRA가 국내 자동차 산업에 미칠 영향

IRA 발효로 인해 자동차 산업은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미국 시장에는 아이오닉5, EV6 등 총 12종의 국산 전기차 판매되고 있다. 그런데 IRA가 발효된 8월 16일부터 우리 기업이 판매하는 모든 전

기차는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게 되었다. 왜냐하면 현대자동차·기아는 현재 미국에 전기차 생산 기반이 없어서 발효 직후부터 적용되고 있는 최종 조립 조건이 충족되지 않기 때문이다. IRA로 인한 국내 자동차 산업 피해의 본질은 미국 전기차 시장에서 가격 경쟁력을 상실한 것이다. 국내 자동차 업계가 IRA에 따라 7,500달러 상당의 세제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불이익을 당하게 되어 미국 시장에서 경쟁국 업체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격 경쟁력 열위에 처해졌기 때문이다. 미국 에너지부 발표에 따르면 IRA 발효 이후에도 포드, 제너럴모터스(GM), BMW 등에서 제조한 약 25개의 전기차들이 최종 조립 조건을 만족해 IRA 발효 이후에도 세제 혜택을 받게 되었는데 국산 전기차는 이 가운데 포함되지 않은 것이다. 특히, 국내 기업 현대차·기아가 미국 전기차

* 최종 조립

2023년부터 배터리에 북미에서 제조 또는 조립한 부품을 50%(2029년 100%로 연도별 단계적 상승) 이상 사용해야 3,750달러를, 배터리에 들어가는 핵심 광물의 40%(2027년 80% 이상으로 연도별 단계적 상승) 이상을 미국과 FTA를 체결한 국가에서 채굴 및 가공해야 나머지 3,750달러의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IRA 주요 항목별 지출 및 수입 현황

구분		금액
지출 항목	에너지 안보 및 기후변화 대응	369
	건강보험개혁법(ACA) 연장	64
	서부 가뭄 대응 역량 강화	4
	총 지출 합계	437
수입 항목	15% 최저 법인세	222
	처방약 가격 책정 개혁	265
	국세청(IRS) 과세 집행 강화	124
	1% 자사주 매입(Buyback) 수수료 부과	74
	손실 한도 확대	52
총 수입 합계	737	
총 재정적자 감축(Deficit Reduction)		300

단위: 십억 달러
 자료: 미국 상원 민주당원(Senate Democrats), '서머러: 인플레이션 감축법 2022 Summary: The Inflation Reduction Act of 20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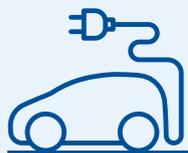
한국 기업의 세계 2차전지 산업 규모

IT기기용 등 소형 배터리

세계 1위

전기차용 배터리

세계 2위



시장에서 시장 점유율을 빠르게 높이고 있던 상황이라 이번 IRA 발효가 더욱 뼈아프다. 지난해 현대차·기아의 미국 시장 점유율이 4.7%였는데 올해는 1월부터 7월까지 누계 기준으로 점유율을 9.1%까지 끌어올려 테슬라에 이어 전체 2위를 차지했다. 아이오닉5, EV6 등 신모델이 미국 소비자들에게 호평을 받으며 시장 점유를 높여 가던 상황에서 IRA 발효로 인한 가격 경쟁력 상실은 우리 자동차 업계에 분명 큰 악재라고 할 수 있다.

최근 현대자동차그룹 미국판매법인이 밝힌 바에 따르면 9월 한 달간 아이오닉5와 EV6 판매량이 전월 대비 각각 14%, 22%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IRA 발효 이전 계약 물량은 세제 혜택을 받는 데 문제가 없고 현대차·기아의 출고 대기 물량을 따져볼 때 IRA만의 영향이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지만 두 차종에 대한 9월 판매량 하락은 우려되는 대목이 아닐 수 없다. 앞으로가 더 큰 문제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IRA 피해의 본질은 대당 7,500달러 상당의 가격 경쟁력을 상실한 것인데, 이에 따른 브랜드 가치 하락 등이 누적된다면 올해 말 또는 내년 초에 미국 시장 점유율 하락 등 실질적 피해가 나타날 수도 있다.

배터리 관련 규정과 2차전지 산업

우리나라 2차전지 산업은 세계적인 경쟁력을 확보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정보기술 IT 기기 등에 탑재되는 소형 배터리 분야는 세계 1위(세계 시장 점유율 기준)를 유지하고 있고, 전기차용 배터리의 경우 중국에 이어 세계 2위지만 최근 격차를 상당히 좁히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중국이 자국 시장의 압도적인 매출 비중으로 세계 1위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우리 2차전지 산업이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미국의 IRA 발효로 국내 2차전지 산업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왜냐하면 IRA 전기차 세액공제 조건에 포함된 배터리 관련 규정 때문이다. 현재 배터리 핵심 광물과 부품의 중국 의존도가 높은 상황에서 IRA가 요구하는 배터리 조건들을 충족시키기 어려울 전망이다.

이 경우 국내 2차전지 기업들이 거래하는 완성차 업체가 미국에서 세제 혜택을 받기 어려워지고, 그로 인해 우리 배터리 업체들도 미국 시장에서 매출 감소 등 부정적 영향이 일부 발생할 수 있다. 다만 파나소닉 등 미국

시장에서 국내 기업과 경쟁 관계에 있는 외국 배터리 기업들도 핵심 광물의 중국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부정적 영향이 있다고 해도 그 정도는 제한적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예상된다.

한 가지 주목해야 할 점은 최근 국내 2차전지 3사가 미국 시장 진출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LG에너지솔루션은 GM 등 완성차 업체와 합작 법인을 세워 미국 내에 4개의 배터리 공장 신축을 추진 중이고, SK온도 포드와 합작으로 2개 공장을 설립할 계획이며, 삼성SDI도 스텔란티스 Stellantis와 공동으로 공장 신축을 추진하고 있다. 이처럼 우리 배터리 기업들이 북미 지역에서의 생산 기반을 확대하는 추세가 규모와 속도 면에서 모두 경쟁국보다 확실히 우위에 있고, GM, 포드 등 미국 내 제조시설을 갖춘 완성차 업체들과 긴밀한 협력 관계를 갖고 있어 IRA 발효가 중장기적으로는 수혜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크다.

공급망 다변화 이제 선택의 문제 아니야

자동차 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선제적 조치를 취해 미국 시장 점유율을 방

어해야 한다. 현대차·기아가 미국 조지아주에 2025년을 목표로 전기차 전용 공장을 짓기로 했는데, 신공장 가동 시점을 최대한 앞당길 필요가 있다. 아울러 IRA의 배터리 관련 규정들은 외국 완성차 업체도 똑같이 어려움을 느끼는 상황인 만큼 IRA 배터리 조건에 부합한 2차전지 공급망 구축도 중요한 과제다. 정부의 역할도 중요하다.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 IRA 유예기간을 최대한 확보하는 게 좋지만 이 경우 IRA의 법안 개정이 필요해 쉽지 않을 전망이다. 현재 미국 재무부가 IRA 시행령 의견수렴을 받고 있고 한미 양국간 실무협상도 계속 열릴 것으로 보이는데, 이들 과정에서 우리 이익이 최대한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국내 2차전지 산업이 IRA 발효 이후에도 미국 시장에서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가져가려면 무엇보다도 배터리 원료, 소재, 부품에 대한 중국 의존도를 줄이고 공급망을 다변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최근 유럽에서도 유럽연합 EU 집행위원회가 '원자재법 Raw Material Act, RMA' 발의를 통해 탈중국 공급망 구축을 추진하고 있어 이제 공급망 다변화는 더 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



미국 전기차 세액공제 적용 조건(IRA Section 13401 요약)

구분	세부 내용	적용 시기
최종 조립 조건	전기차의 최종 조립이 북미(미국, 캐나다, 멕시코 3개국을 의미)에서 이루어져야 함	2022.8.16.~(발효 즉시)
배터리 핵심 광물 조건	전기차에 탑재된 배터리 제조에 사용된 핵심 광물은 40% 이상(2023년 기준, 비율은 매년 증가)이 i) 미국 또는 미국의 FTA 체결국에서 추출 또는 처리되거나 ii) 북미에서 재활용된 경우에 한해 3,750달러 상당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음	2023.1.1.~
배터리 부품 조건	전기차에 탑재된 배터리 제조에 사용된 주요 부품은 50% 이상(2023년 기준, 비율은 매년 증가)이 북미에서 제조 또는 조립된 경우에 한해 3,750달러 상당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음	2023.1.1.~

자료 산업연구원

국내 2차전지 업체별 미국 생산 기반 증설 계획

구분	증설 계획
LG에너지솔루션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국 오클랜드와 오하이오에 공장 운영 중 GM과 공동으로 오하이오(2022년 하반기), 테네시(2023년), 미시간(2025년)에 총 3개의 배터리 공장을 건설할 계획 스텔란티스와 공동으로 캐나다 온타리오(2024년)에 공장 설립 추진 중
SK온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국 조지아(제1공장)에서 공장 운영 중이며, 조지아 제2공장(2023년) 증설 중 포드와 공동으로 켄터키(2025년) 및 테네시(2025년)에 2개의 공장을 건설할 계획
삼성SDI	<ul style="list-style-type: none"> 스텔란티스와 공동으로 인디애나(2025년)에 공장을 건설할 계획

자료 산업연구원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
 한국유통학회장, 중소기업학회장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공정거래위원회 비상임위원, 국민통합위원회 대 중소기업 상생특별위원회 위원이다.

삼중고에 더한 미국 IRA, 중소기업에 미칠 영향과 대응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삼중고에 더해 최근 미국에서 발표한 '인플레이션 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 IRA)'으로 국내 중소기업은 위기 국면에 처했다. 하지만 혁신과 도전을 통한 전략으로 지금 처한 상황을 기회로 바꿀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IRA 법안에 대한 대응 방안 모색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지난 10월 19일 콜린 크룩스 주한영국대사, 다니엘 볼벤 주한스웨덴대사, 크리스토프 베스 주한EU대사관 수석사무관과 면담을 갖고, 미국 IRA 법안에 대한 대응 현황 및 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다.

지난해 후반부터 꿈틀거리기 시작한 물가는 올 초 러·우 전쟁이 발발하면서 크게 오르기 시작했다. 유류와 가스를 비롯한 천연에너지 가격이 급등하기 시작했고, 거기에 곡물가도 크게 오르면서 원자재 가격 급등이 세계적으로 확산되었다.

올 초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3.6%였는데, 2월부터 오르기 시작하더니 7월에 6.3%까지 상승했다가 지난 9월에는 5.6%로 다소 내렸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물가 상

승은 세계적인 현상으로 나타났고, 특히 미국의 인플레이션은 지난 9월에 8.2%의 소비자물가 상승률과 함께 심각한 수준으로 고공 행진을 하면서, 금리 인상을 야기하고 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는 빅스텝(0.5%포인트 인상)에 이어 자이언트 스텝(0.75%포인트 인상)으로 금리를 인상하며, 올 1월에 0.25%의 기준금리에서 지난 9월에 3.25%로 9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3%포인트 인상시킨 것이다.

미국의 금리 인상은 미국 달러화 가치도 높여서 세계 각국의 달러 대비 환율이 크게 오르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우리도 미국의 금리 인상 기조에 발맞춰 올 1월 1.25% 기준금리에서 올 10월에 3%로 10개월 만에 1.75%포인트 인상시켰으나, 현재 미국 금리에 비해 낮은 금리 역전 현상이 발생해 앞으로 금리 인상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원자재 가격이 오르면서 중소기업들은 올 초에는 원달러 환율이 1,200원을 밑돌았는데, 10월에 들어오면서 1,400원을 넘어서고 있다. 올 초에 비해 10월 현재 환율이 20% 이상 오른 것이다. 전반적으로 생산원가가 올랐는데, 세계적 경기 침체와 함께 국내 소비도 위축되면서 생산비 상승분을 가격 인상으로 연결시키기도 어려워지며 수익성은 떨어지고 있다. 여기에 더해 금리가 급하게 오르면서 금융비용까지 올라 설상가상으로 비용 부담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한편에서는 환율까지 오르면서 원자재 수입 단가도 더욱 오르게 되어, 생산원가 상승이 이어지고 있는 것도 문제다. 이론적으로 본다면, 환율이 오르면 수출 경쟁력이 증대되어

수출 중소기업들이 환율 인상에 따른 반사이익을 누리야 하는데, 지금은 비용 부담만 커지고 세계적 경기 침체로 소비 수요가 줄면서 수출이 어려워지는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

IRA에서 긍정적 기회 찾아야

이렇게 중소기업이 삼중고에 직면하며 어려움에 처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은 지난 8월에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인플레이션과 기후변화 대응, 의료 보장 확충, 대기업 증세 등을 골자로 한 'IRA' 법안에 서명했다. 고금리·고환율·고물가의 복잡한 글로벌 상황에 더해 미국의 IRA로 국내 기업들은 또 다른 어려움에 처할 수도 있는 상황이 된 것이다.

IRA로 인해 직접적으로는 미국으로의 전기 자동차 수출이 가장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 내에서 생산된 전기차에만 보조금이 지급되고, 생산 원자재에 복미산 비율이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내용이 이 법에 담겨 있기 때문이다. IRA에 따르면 결국 미국 내 판매를 위해서는 전기차 생산지를 미국 내에 두라는 것이고, 원자재도 복미산을 최대한 사용하라는 것이어서 현대차를 비롯한 한국 자동차 업계의 국내 생산이 타격을 받을 것이고, 수많은 중소기업 협력 기업들 또한 피해를 입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IRA가 국내 기업들에 부정적인 영향만 있는 것은 아니다. 긍정적인 면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청정에너지 환경 구축에 있어서, 친환경 에너지 기술을 갖춘 기업들에게는 향후 시장 확대의 기회가 커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보건 의료 분야에서도 의료복지 서비스 증대 정책과 함께 장기적으로

는 보건의료 분야에서의 시장 확대 기회도 주어질 수 있다. 물론 이를 위해서는 중장기적인 대책으로 기술력을 확보해서 미국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높이는 대응이 절대적으로 필요해 보인다.

이제 중소기업이 직면하고 있는 삼중고 위기를 잘 극복해야 할 텐데, 이를 위해서는 당장 중소기업이 무너지는 것을 막기 위한 정부 대책으로 시작해서 기업의 강인한 대응 전략이 있어야 할 것이다. 지금의 삼중고는 전체적으로 보면, 비용 증대의 문제로 직결된다. 고물가와 고환율에 의한 생산원가 압박이 크고, 또한 고금리에 의한 금융비용 압박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가다. 따라서 정부는 중소기업의 생산비용 부담을 낮춰주는 실효성 있는 지원 정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고물가·고환율·고금리는 먼저 정부의 거시경제 정책과 연관되어 있어서, 당장은 지금 펼치고 있는 거시경제 정책의 효과를 기대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단기적으로는 생산비용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줄 수 있는 저금리 정책금융 지원 강화와 세제 지원 등이 있을 것이다. 중장기적으로는 기술 혁신을 통해 원가가 절감되도록 연구·개발(R&D) 지원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앞서 언급한 미국 IRA 시행에 따른 시장 확대 기회를 얻기 위해서도 중요하다. 한편 중소기업에게는 지금의 시장을 둘러싼 거대한 변화의 흐름을 적극적으로 이해하고, 이러한 변화에 보다 도전적인 자세로 임해야 할 것이다. 중소기업 스스로의 혁신이 없으면 아무리 정부가 좋은 정책을 내놓더라도 그 실효성은 낮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노정덕
(주) KEM 대표이사

(주)KEM

공작기계 관련 제품으로 글로벌 초일류 기업을 꿈꾸다

공작기계(Machine Tool)는 '기계를 제작하기 위한 기계'를 총칭하는 말로서 일반적으로는 금속가공기계를 말한다. 이를 제작하거나 운전하려면 다양한 부품이 필요하다. 부산에 본사를 둔 KEM은 자동화기계 및 공작기계 관련 부품을 국산화하기 위해 1988년 설립된 기업이다. 서지 프로텍터(Surge Protective Device, SPD), 각종 스위치, 서지 킬러 등의 제품을 국산화하고 품질 수준을 높이며 34년의 역사를 이어오고 있다. 특히 삼성전자 베트남 공장에 오일 스키머 2만여 대를, 한국미시미를 통해 까다로운 일본 시장에도 수출하고 있다.

부산광역시 강서구 유통단지에 KEM이 있다. 서부산유통지구라고 불리는 곳이다. 부산 시내 중심부에서 서쪽으로 달리다 보면 낙동강 바로 건너편에 있다. 김해공항과도 인접해 있다. 이 지역은 50여 년 전 논과 밭이던 허허벌판이었다. 하지만 상전벽해를 이루었다. 국제산업물류도시, 에코델타도시로 거듭나고 있는 것이다. 특히 경전철 개통으로 부산과 김해의 우수 인력을 확보하기 쉽고 신항과 공항이 가까워 물류 측면에서도 편리한 곳이다. 녹산 국가산업단지, 양산·창원 등의 주변 산업단지와의 가깝다.

부산~김해 간 경전철 서부산유통지구역 바로 옆에 있는 KEM은 메카트로닉스 부품 분야 강소기업이다. 소재·부품·장비는 제조강국이 되려면 지금도 많이 노력해야 하는 분야다. KEM은 1988년 메카트로닉스 부품 국산화를 목표로 설립되었다. 부산 본사에서 만난 노정덕 대표는 "일본과 독일 등에서 비싸

게 수입에 의존해 오던 자동화 및 공작기계 관련 부품을 독자적으로 개발하겠다는 뜻을 품고 창업했다"며 "많은 기술적 난관을 극복하며 해외 선진 기술을 과감히 도입하고 국내 여건과 실정에 맞게 보완해 국산화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최고의 제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며 고객 감동을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왔다"고 덧붙였다. 처음엔 품질이 수입 제품에 못 미쳤다. 하지만 꾸준히 기술을 개발하고 품질을 개선해 지금은 세계 어디에 내놔도 손색없는 제품이 되었다고 설명했다. KEM이 개발한 제품은 오일 스키머(Oil Skimmer), 인터페이스 커버, 푸시버튼 스위치, 코드 스위치, 스파크 킬러(Spark Killer), 불꽃 지우개, 오일 클러, 서지 킬러(Surge Killer), 서지 프로텍터(SPD), 발광다이오드(LED) 인디케이터, 노 푸즈 브레이커 핸들 등 다양하다. 노 대표는 "우리가 생산하는 제품은 사양별로 따지면 모두 수백 종에 이른다"고 말했다.

메카트로닉스 부품 강소기업

대표 품목은 △낙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개발한 낙뢰 보호기인 'SPD' △공작기계 절삭유 탱크 수표면 위에 떠 있는 비수용성 기름을 분리해주는 '오일 스키머' △'인터페이스 커버'다. SPD는 낙뢰 피뢰기 및 서지 보호 장치다. 서지로부터 각종 전장설비를 보호해주며 분전함 등에 직접 설치할 수 있는 장치다.

노 대표는 "자동화 장비는 모든 컨트롤러가 메모리 집적회로 IC에 의해서 자동으로 돌아가는데 낙뢰나 외부 고주파 노이즈에 의해 메모리가 지워지는 경우가 있다"며 "이를 예방하기 위해 SPD가 필수로 장착되고 있으며 컴퓨터를 이용하는 가정이나 일반 산업 장비에도 SPD를 사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삼성 반도체 생산 장비에도 우리 SPD를 장착했다"며 "이처럼 고가의 장비를 자체 설비 보호를 위해 필수로 SPD를 선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주요 적용 분야는 철도 신호 장치, 통신·계측 장치, 자동 제어 장치, 에스컬레이터·엘리베이터 제어반, 태양광발전 시스템의 보호용이다.

오일 스키머는 물 위에 떠 있는 기름을 분리하는 장비다. 마차 수영장의 부유물이나 이물질을 뜰채로 제거하듯 윤활유, 모터유, 기계 작동유 및 기타 액체 상태의 기름 제거 등에 광범위하게 사용된다. 세부적으로 절삭유, 절삭유 속 부유기름, 가공품 세척탱크, 열처리, 도장 공장 연삭기, 머시닝센터, 컴퓨터수치제어 CNC 선반 등에 사용된다. 특히 환경오염을 최소화하려는 최근의 ESG경영 상황과 맞물려 공작기계를 비롯해 각종 생산설비에 오일

스키머를 장착하는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다. 그는 "벨트 소재는 우레탄, 스테인리스스틸로 다양화했으며 튜브 타입 오일 스키머도 개발해 고객들의 선택 폭을 넓혔다"고 설명했다. 신제품인 튜브 타입 오일 스키머의 경우 설치와 분리가 쉽다는 특징이 있다.

스위치에는 로터리 스위치 Rotary Switch, 풋 스위치 Foot Switch, 코드 스위치 Cord Switch 등이 있다. 로터리 스위치는 원주 모양으로 배치된 접점상에 와이퍼를 회전시킴으로써 원하는 접점(거기에 접속된 회로)을 선택하기 위한 전환 스위치를 의미한다.

이 밖에 서지 킬러는 송전선의 이상 순간 전압이나 회로의 개폐기를 오프 Off시켰을 때 발생하는 순간 전압을 흡수하는 장치 또는 소자를 말한다. 스파크 킬러는 릴레이의 접점에 부하가 발생할 경우 스파크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들 접점 사이에 삽입해 불꽃을 없애도록 하는 부품을 이른다.

부품 국산화를 위해 창업

서울이 고향인 노 대표는 창업 전 서울 세운상가에서 직장생활을 하며 기계 부품과 관련한 일을 했다.

그는 "1980년대 말 유럽, 일본 등 공작기계 관련 수입 제품들이 비싼 가격과 사후관리 AS 미비로 국내 고객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점을 보고 국산화에 나서기로 했다"며 "우리가 처음 이 사업을 시작했을 때만 해도 국산 제품에 대한 품질을 인정받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국내 제조 기업들은 이런 문제점을 파악해 부품의 국산화 필요성을 인식하기 시작했다. 그는 "이런 시장 상황에 맞춰 국산화 개발을 시



“ KEM의 가장 중요한 경영 철학은 '국산화의 참병이 되는 것이다. 우리가 만든 일류 제품, 우리가 쓰자!'라는 경영 모토를 갖고 있다. ”

작했지만 처음 제품을 개발했을 때엔 만족스러운 결과가 나오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예컨대 그 당시 유럽이나 일본 제품은 금형으로 사출해서 만들어 모든 금속 제품들이 플라스틱 사출 제품처럼 매끄럽고 일관성이 있었다. 하지만 국내 제품은 주로 주물을 이용하다 보니 후가공을 많이 해야 하고 품질도 일정하지 않았다고 그는 설명했다. 하지만 정부의 국산화 정책에 발맞춰 국산 개발에 첫발을 디딜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끊임없는 개발로 다양한 인증 획득

KEM의 발자취를 보면 얼마나 제품 개발 및 국산화에 열심히 노력했는지 알 수 있다. 1988년 7월 KEM은 한국전제공업사라는 이름으로 설립되었다. '전제'는 '전기자재'의 약자다. 2달 뒤 스파크 킬러를, 12월엔 로터리 스위치를 개발했다. 이듬해 오일 쿨러, 1990년대 들어 풋 스위치, 서지 킬러, 코드 스위치를 잇달아 개발했다. 매년 1건 이상을 개발한 셈이다. 2000년대 들어서도 이런 개발 노력은 더욱 강화되었다. 2000년 인터페이스 커버, 2002년 오일 스키머를 개발했다. 이 과정에서 사업을 확장해 2003년 부산 폐법동으로 이전했다. 2008년에는 (주)한국전제로

법인전환을 한 뒤 부산 감전동 신사옥으로 확장 이전했다.

2011년엔 (주)한국전제에서 (주)KEM으로 상호를 변경하고, 부품소재 전문 기업 확인서를 획득했다. 오일 스키머에 대해 유럽 CE 인증, 발광다이오드 LED 시그널 램프에 대해 유해물질제한지침 ROHS 인증을 각각 획득하며 신뢰도를 높였다. 이런 노력에 힘입어 2013년에는 삼성전자 베트남 공장에 오일 스키머 1만8,900대를 납품하는 성과를 올렸다. 그 뒤 신제품을 잇달아 개발했고 2016년 지금의 서부산유통단지 신사옥으로 확장 이전했다.

이어 2017년 우수 자본재 개발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고, 2018년에는 벤처기업,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Inno-biz, 기업부설연구소 인증을 각각 획득했다. 2020년에는 부산지방국세청장 표창을 받는 등 여러 상과 표창장을 받았다. 이 회사의 주요 거래처는 두산공작기계, 현대위아, 삼성전자, 한국화낙, 스텝, 화진기계, S&T중공업, 미스미, (주)한화 등이다. 국내외 굴지의 기계 기업과 거래하는 셈이다.

KEM의 3가지 성장 동력

그는 기계 부품 관련 사업을 하려면 창원, 울산 등이 인근에 있는 부산에서 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해 부산 서면에서 회사를 설립했고 폐법동, 감전동을 거쳐 지금의 서부산으로 등지를 옮겼다. KEM이 꾸준히 성장할 수 있었던 데는 몇 가지 요인이 있다.

첫째, 끊임없는 연구·개발 R&D이다. KEM은 창업 초기부터 연구·개발과 국산화에 주력했다. 이를 통해 여러 부품을 개발했을 뿐 아니



**노정덕 대표의
기업 철학**

**1. 국산화와 끊임없는
개발이 답이다**

새로운 기술 도입과 신뢰도 높은 제품만이 기업의 생존 전략이 될 수 있다.

2. 세계로 나아가야 한다

글로벌화를 위해 기업을 변화시키고, 다양한 전시회에 참여하는 등 기회를 창출해 수출을 도모해야 한다.

3. 제품이 아닌 작품을 만든다

제품을 개발하는 것이 아닌 작품을 만든다는 생각으로 기업을 이끌어 나가야 한다.



창업

1988년

—

본사

부산광역시 강서구 유통단지
1로 65번길 9

—

업종

공작기계 관련 제품
(오일 스키머, 인터페이스 커버,
풋 스위치 등 수백 종)



임직원

37명



홈페이지

www.kem.co.kr

라 CE, UL, ISO9001 품질경영, ROHS 등 다양한 인증을 획득했다. 그는 제품을 개발해 생산할 때 “제품이 아니라, 작품 Masterpiece을 만든다는 생각으로 일을 했다”고 설명했다. 마치 예술가가 혼신의 힘을 쏟아 작품을 만드는 마음가짐으로 일을 했다는 것이다.

둘째, 글로벌화다. KEM은 2011년 글로벌 이노베이션 캠페인으로 ‘(주)한국전제’에서 ‘(주)KEM’으로 사명을 변경한 뒤 홈페이지와 블로그 활동 등을 통해 자사의 최근 소식과 신제품에 대해 홍보하고 있다.

아울러 중국, 일본, 말레이시아, 러시아, 태국, 베트남, 폴란드 등에서 열리는 관련 전시회에도 꾸준히 참가하고 있다. 이런 노력에 힘입어 (주)한국미스미를 통해 일본에 제품을 수출하고 있다. 수년 전 모 글로벌 기업이 삼성전자

베트남 공장에 휴대전화 케이스를 가공하는 태핑머신 공급 계약을 맺었는데, 이때 태핑머신 주변 기기에 들어가는 KEM의 오일 스키머가 선정되면서 총 2만여 대를 공급했다.

셋째 ‘윈윈 Win-win 전략’이다. KEM은 발주처의 제안으로 부품을 국산화한 경우가 많다. 발주처는 외산 부품이 비싸고 적기에 조달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어 “이런 부품을 개발해줄 수 있는지”를 KEM에 문의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한다. 그러면 KEM은 발주처와 머리를 맞대고 부품을 국산화해 수입 부품보다 30% 가량 저렴한 가격에 납품했다. 그러면서 품질을 지속적으로 향상시켰다. 발주처와 KEM이 윈윈 전략(상생 전략)을 편 것이다. 이런 국산화를 계기로 발주처 담당자가 사내 포상을 받는 일도 종종 있었다고 한다.

KEM의 가장 중요한 경영 철학은 ‘국산화의 첨병이 되는 것이다. 우리가 만든 일류 제품, 우리가 쓰자’라는 경영 모토를 갖고 있다. 노 대표는 “수입 부품의 국산화는 가격 및 사후관리 부문에서 어려움이 있었던 국내 고객과 더 나아가 국내 산업 발전에 큰 기여를 해 왔다”고 자평했다.

또 하나는 고객 중심 경영이다. 이 회사는 ‘고객 없이 KEM은 없다’라는 슬로건을 갖고 있다.

노 대표는 “일대일 관계 마케팅 서비스 One to One Relationship Marketing Service를 통해 고객의 다양한 요구를 수용하고 있다”며 “이런 경영 원칙은 KEM의 제품들을 보면 쉽게 알 수 있으며 그 예로 홈페이지에 있는 ‘고객의 제안’을 통해 문제를 접수하면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한 뒤 즉각 적용한다”고 설명했다.



1988.
한국전제공업사 설립

1989.
오일 콜러 개발 및 생산

1995.
SPD 개발 및 생산
서지 킬러 개발 및 생산

1996.
코드 스위치 개발 및 생산

2000.
인터페이스 커버 개발 및 생산

2002.
오일 스키머 개발 및 생산

2003.
폐법동 신사옥 확장 이전
인터페이스 커버 실용신안 등록

2006.
ISO9001 품질경영 인증
오일 스키머 실용신안 등록

2007.
지식경제부 부품소재
전문 기업 선정

2009.
스파크 킬러 실용신안 등록

2010.
오일 스키머 신뢰성 인증 획득

2011.
(주)KEM으로 상호 변경

2013.
코드 스위치 CE 인증 획득

2014.
제14회 공작기계인의 날
우수 경영자 수상

2015.
신제품 개발(오일 스키머,
SPD, 서지 킬러, 스파크 킬러,
인터페이스 커버)

2016.
서부산유통단지 신사옥
확장 이전

2017.
우수 자본재 개발
대통령 표창 수상

2018.
벤처기업, Inno-biz,
기업부설연구소 인증 획득

2020.
부산지방국세청장 표창 수상



메카트로닉스 부품 강소기업 서부산유통지구에 위치한 KEM은 1988년 메카트로닉스 부품 국산화를 목표로 설립되어 현재 국내는 물론 일본 등에 수출하고 있다.

노 대표는 앞으로의 목표에 대해 “현재 간접수출을 포함하면 전체 매출의 40~50%가 수출되고 있지만 직접 수출 비중은 아직 낮은 편”이라며 “앞으로 직접 수출을 늘리는 게 과제”라고 말했다.

그는 “해외 시장의 온·오프라인 마케팅 부분에 과감하게 투자한 결과 올해는 해외 곳곳에서 새로운 수주 계약이 체결되고 있다”며 “앞으로 해외 대리점도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도 국내에선 메카트로닉스 산업에 기여하는 기업으로서 책임을 다하고, 글로벌 시장에선 세계 각지의 고객 요구에 적극 대응하는 회사가 되겠다”며 “일류 기업으로 끊임없이 도전하고 발전해 나가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신지영 한국ESG연구원 대표

대기업 ESG 전략·기획을 담당했으며, 다양한 현장과 실무에서 얻은 경험을 바탕으로 중소기업부터 대기업까지 ESG 평가, 교육, 컨설팅을 하고 있다.



세계를 바꾸는 ESG 주요 국가별 대응 방향

해마다 바뀌는 세계 주요국의 ESG에 대한 관심과 대응이 조금씩 더 속도를 높이는 추세다. 기업에 ESG경영을 요구하는 이해관계자가 다양해지고 그 관심의 깊이도 넓어지고 있다는 의미다. 세계 각국의 ESG 관련 대응 현황을 확인해 우리 역시 국가 차원을 넘어 각 산업 및 기업 규모별 대응 방향에 대해 재점검해볼 필요가 있다.

우리는 기업의 경영 전략상에서 비재무적 기업 역량에 대한 경쟁력을 확보해야 하는 과제 앞에 놓여 있다. 이는 실무 측면에서 보면, 가장 먼저 조직을 둘러싼 이해관계자가 누구인지 식별하는 과정부터 재고해볼 필요가 있다는 뜻이다.

지금까지 기업의 이해관계자는 인도 출신 경제학자 라젠드라 시소디어 교수의 스파이스 모델 SPICE Model(사회 Society, 협력사 Partner, 투자자 Investor, 고객 Customer, 종업원 Employee)에 따라 조직의 현황에 적합하게 사용되고 있다.

조직의 성격에 따라 주요 이해관계자 중 하나로 식별되었던 '정부 또는 유관 정부기관'은 다소 소극적인 이해관계자로 식별되기도 했다. 관련 업무에 대한 정책이 바뀌었을 때 대응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가장 강력한 이해관계자이지만, 소극적인 경우 조세 납부의 의무를 다해야 하는 것이 가장 우선되어야 하는 이해관계자로 인식하는 기업도 있다.

그런데 ESG가 전 세계적 확산에 그치지 않고 국가별 실력이 되어 간다는 차원에서 보자면, 이미 큰 정부 시대가 도래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충격이 전 세계를 강타하고 점차

그 영향이 강화되면서 ESG경영이 이 상황이 타개하기 위한 가장 적합한 전략이라는 사실이 계속해서 입증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 차원이 아닌 국가 차원의 대응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세계 여러 국가도 이 점을 충분히 고려하고 선제적으로 나서기 시작했다. 과거, 인도네시아(2007년)를 시작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이 사회적 책임 CSR 활동을 추진해야 한다는 법제화가 시작되었다. 그 이후부터 인도, 미국, 유럽 연합 EU 등 다양한 국가별로 CSR 활동을 의무화해야 하는 기업의 규모를 정했고, 더 나아가 기업의 비재무적 활동에 대한 정보를 공시해야 한다는 논의가 제도로 정착되었다.

공급망 중단 후, 기업 수명 관련 관심 확대

코로나19 이전 시대에는 이런 논의가 기업의 규모에 비해 적용되는 것이 당연한 개념이었으나, 전 세계적인 공급망 중단 사태가 여러 산업에서 발발하면서 사람들은 과연 누가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지, 다시 말해 기업의 수명을 지켜낼 수 있는 플레이어가 누구인지에 대해 주목하기 시작했다.

같은 규모, 같은 조건, 같은 산업이라도 어떤 기업은 사업 상황이 어려워짐에 따라 급격한 타격을 입었고, 또 누군가는 그 와중에 대응 전략을 빠르게 선택하고 경영 방향성을 틀어 기업을 지켜냈다.

이러한 과정에서 공급을 원활하게 이어갔는가 아닌가를 판단하는 요인 중 강력한 것이 비재무적 요소임이 밝혀지면서 자연스럽게 ESG경영에 대한 니즈는 폭발적으로 그리고 전 세계로 퍼져 나갔다.

ESG도 큰 정부의 손이 작용

기업의 개별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인 공급망 차원의 문제로 촉발된 사태에 대한 직접적인 타격은 무역수지에 영향을 미쳤다. 국가 차원에서 발벗고 나서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파리기후변화협약이나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 UN SDGs 등 글로벌 이니셔티브에 대한 이행이란 차원이 국가가 기업에 ESG경영을 촉구하는 거대한 프레임이지만, 좀 더 직접적으로 바라보면 국가 경쟁력 자체에 ESG경영이 반영되면서 각국의 정부가 전면으로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이다.

EU의 대응

EU는 2018년, '지속가능금융 행동계획'을 발표했다. 친환경, 사회적 책임, 지배구조 개선에 대한 정책 방향을 결정했고, ESG 규제에 따라 EU 기업이 역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EU 외 기업에도 해당 규제를 적용해 평등성과 일관성을 부여하기 위한 내용이 포함되었다.

2021년 4월,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EU 녹색산업 분류체계'를 도입했고, 이후

우리나라 지속가능경영보고서 의무화 추진 일정

- 1 단계(~2025년)
자율공시 활성화
- 2 단계(2025~2030년)
기업 규모별 의무공시 대상 확대
- 3 단계(2030년~)
전 코스피 상장사 의무공시

자료 금융위원회

EU 공급망 실사제도, EU 비재무 보고 지침, EU 지속가능금융공시 규정으로 확대했다. 이렇게 EU 차원의 ESG 규정 기준이 마련되다 보니, 역내 글로벌 기업들은 이 자체를 더 이상 규제로만 바라보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 기업과 가장 두드러진 차이점은 ESG경영의 범위에 대한 인식이다. 아직 우리나라에선 ESG경영에 대한 실무적 이해가 부족한 상황인 데 반해, EU 글로벌 기업에서는 관련 규제와 가이드라인 내에서 새롭게 기업 운영 방식을 정하고, 그 자체가 일종의 무형 자산임을 인식하기 시작했다. 또 공급망에 대한 인식도 다르다. 공급망 내에서 발생하는 각종 사회·환경 문제에 대한 책임이 글로벌 기업 자체에도 있다는 점을 인

식하면서 기업의 책임 범위에 대한 개념이 다른 국가와는 차이가 발생하면서 그 격차 자체가 기업을 넘어 국가적 경쟁력이 되어 가는 형국이다.

EU 외 각국의 ESG 관련 동향

EU 외에 여러 국가에서 ESG와 관련한 법제화에 대한 준비가 차근차근 진행 중이다. 대다수의 국가별 법제화는 기업의 비재무 정보에 대한 공개 및 공시가 중심을 이루고 있다. 결국 이는 ESG경영 전략과 활동이 선행되지 않는다면 불가능한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공시 시간표를 중심으로 세계가 변하는 것이 아니라 공시할 내용을 먼저 준비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EU 녹색산업 분류체계 EU Taxonomy

- 기후, 에너지에 대한 환경 목표와 그에 관련한 판단 조건으로 구성
- 지속가능금융을 확대할 목적으로 제정되었으며, '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한 경제 활동'을 정의 및 판별하는 기준

EU 택소노미 규정(Verordnung(EU) 2020/852)

- 원자력발전소와 가스발전소를 지을 때 안전과 환경성을 최우선 기준으로 적용
- 정부와 민간 투자를 강제로 제한하는 요건이 아닌 자발성과 인센티브에 관련해 유리한 조건 형성 가능

EU 택소노미 규정의 6가지 환경 목표

- ① 기후변화 완화 Climate Change Mitigation
- ② 기후변화 적응 Climate Change Adaptation
- ③ 수자원, 해양자원의 지속 가능한 이용 및 보호
- ④ 순환 경제 Circular Economy 로의 전환
- ⑤ 오염 방지 및 관리
- ⑥ 생물 다양성과 생태계 보호 및 복원

EU 지속가능금융공시 규정 Sustainable Finance Disclosure Regulation, SFDR

- 금융기관의 투자·금융 상품 등을 공시할 때 지속가능성 정보를 공시하도록 의무화하는 규제
- ESG 공시 제도화를 통한 투자자 보호 강화가 목적

우리나라의 ESG 공시 시간표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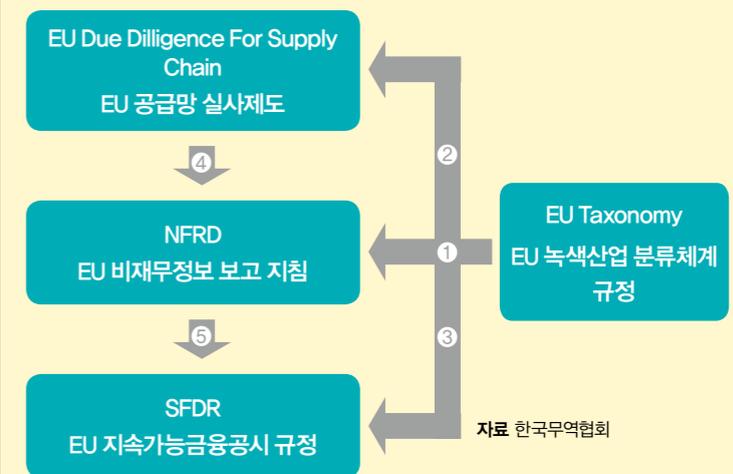
우리나라도 이와 같은 추세에 따라 ESG 공시에 대한 시기와 대상이 정해졌고, 이미 많은 미디어를 통해서 보도되었다. 그러나 ESG 실무 교육이나 기업 출장을 통해 느낀 바로는 공시 대상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이 공시에 대한 내용을 충분히 알지 못하는 경우가 대다수였다. 특히, 문제점은 2단계에 달하는 2조 원 이상의 기업에 대해서는 2025년부터 대상이기 때문에 인지하고 있는 경영자 및 실무자가 많지만 다소 오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ESG경영 활동 실적을 2025년부터 공시하라는 것이므로 이전부터 ESG경영에 대한 추진 전적이 있어야 공시가 가능하다. 말 그대로 '보고할 것이 있어야 보고할 수 있다'는 의미다. 그러나 이런 점을 간과하고 '그때쯤 되어서 뭐라도 하면 되겠지' 하고 안일하게 생각하는 기업을 만나면 이 점을 강하게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 이 사실을 알지 못하는 더 많은 기업이 존재할 것이라 생각한다. ESG경영에 대한 목소리는 공시 법제화가 시행되는 국가가 본격적인 활동을 추진함에 따라 우리나라 기업의 무역 실적에 직격타가 될 것이다. 이는 나아가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국가 경쟁력과 이어지는 장기적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한다. 세계가 바뀌고 있는 속도가 현저하게 우리와 다르다. 이 점에서 우리는 변화를 받아들이는 기업의 자세에 대해서도 되짚어봐야 한다. 기업의 규모나 사정에 따라서 ESG경영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는 점도 알고 있다. 그러나 변화는 언제나 시장을 바꾼 핵심 원동력이었음을 기억해야 한다.

EU 외 각 국가의 ESG 관련 동향

영역	지표
미국	2020년 시작으로 2035년까지 3년마다 캘리포니아 공무원연금과 캘리포니아 교직원연금은 투자 포트폴리오의 기후변화 관련 리스크 보고서 의무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인적자원 관련 정보 공시 의무화(2020.11.9 시행)
한국	일리노이주 지속가능투자법안: 일리노이주 연기금은 지속가능투자 정책과 보고서 발간 의무화(2020.1.1 시행)
	한국거래소 ESG 정보 공개 가이드라인 발표(2021.1.18) 지속가능보고서 공시 의무화 - 자산 2조 원 이상의 기업들, 2030년부터 모든 코스피 상장사 공시 의무화
일본	일본 스튜어디십 코드 개정 시행(2020.3.24)
	2021년 상반기 ESG 공시 방법 마련
중국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CSRC는 탄소배출량이 많은 기업들은 탄소배출량과 환경·사회 관련 정보 공시 권고(2021년까지 시행)
	기후변화 리스크를 투자 리스크로 고려하는 펀드매니저 행동규칙 개정안(2020.10.20 발표)
홍콩	홍콩 금융관리국HKMA과 홍콩 증권선물위원회SFC ESG 통합 체계 가이드라인 발표
	홍콩 증권거래소 상장 기업의 ESG 공시 의무화, 2017년도 환경 정보 공시 의무화에서 한 단계 강화(2021.1.1 시행)

자료 언론 자료, KB증권

EU의 ESG 규정 관계도





IBK가 만난 이달의 기업들

윤종원 IBK기업은행장은 지난 10월 경남 밀양에서 열린 '2022 영남루 포럼'과 'IBK최고경영자클럽 하반기 경영전략 세미나'에 참석했다. 윤 행장은 두 행사를 통해 어려운 국내외 경제 여건에 대한 우려를 전하는 동시에 국책은행으로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을 약속했다.



2022 영남루 포럼에서 특강을 하고 있는 윤종원 IBK기업은행장 윤 행장은 이번 포럼에서 최근 국내외 경제 상황과 향후 대응 그리고 IBK기업은행의 역할을 주제로 지역 기업인들과 소통했다.

윤종원 IBK기업은행장은 지난 10월 7일 밀양 아리나호텔에서 열린 2022 영남루 포럼에 참여했다. 경남 밀양시와 밀양상공회의소가 주관한 이번 행사에는 박일호 밀양 시장, 손영준 밀양상공회의소 회장, 밀양시 관내 기관 및 기업인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영남루 포럼은 지역 발전을 위해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고 상호 의견을 교류하는 장으로 밀양시의 상징인 보물 '영남루'라는 이름으로 올해 처음 특강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포럼에 초청된 윤 행장은 최근 국내외 경제 상황과 향후 대응 그리고 IBK의 역할을 주제로 유익하고 깊이 있는 내용으로 열띤 강연을 펼

치며 지역 기업인들과 소통하고 다양한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을 가졌다.

윤 행장은 "가파른 물가 상승으로 미국 연방준비제도 Fed의 정책 기조가 긴축으로 전환, 달러 금리 상승이 달러 강세로 이어지며 환율 또한 급등한 상황"이라고 3고^高 현상을 언급하며 "최근 경기·금융 시장 동향 및 전망, 글로벌 유동성 확대에 따른 금융경제과 실물경제의 괴리는 최근 자산 가격 하락으로 완화되었지만 여전히 불확실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이어 "한국의 연평균 성장률은 7.1%, 1인당 평균소득은 3.2만 달러로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수준에 수렴했지만 노동생산성은 OECD 하위권, 총요소생산성 또한 하락하는 추세로 고령화에 따른 생산가능인구 감소로 경제 역동성 저하가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윤 행장은 "최근 중소기업의 경제 비중은 높지만 높은 신용 위험, 취약한 담보력 등 불리

한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최근 들어 금리 상승,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경영 여건이 악화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IBK기업은행은 국책은행으로서 위기 시 안전판 역할을 위해 금융비용 경감 프로그램, 금융주치의 등 중소기업을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 행장은 지난 10월 17일부터 19일까지 2박 3일간 롯데호텔 제주에서 진행된 IBK최고경영자클럽 하반기 경영전략 세미나에 참가했다. 이번 세미나에는 클럽 회장인 이방희 삼익가구 회장을 비롯한 기업 최고경영자 CEO 392명과 은행장, 기업고객그룹장 등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윤 행장은 세미나에서 강연을 진행하며 "3년 만에 진행되는 하반기 경영전략 세미나에 참석할 수 있어 매우 기쁘다"고 전하며 IBK최고경영자클럽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전했다.

이어 그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으며 다가오는 겨울 유럽 발 에너지 위기로 인한 불확실성은 커지고 있다"고 우려하며 "현재 한국 경제 역시 고환율·고금리·고물가의 삼중고^{三重高}에 직면하여 기업을 운영하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중소기업이 건실해야 현재의 위기도 극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IBK최고경영자클럽의 회원들은 공급망 충격 및 환율 급등 등 어려운 경영환경 속에서 IBK기업은행이 기업의 위기극복 및 지속 가능 성장을 위해 더 힘써줄 것을 요청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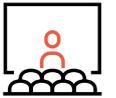
윤 행장은 IBK기업은행이 국책은행으로서 중소기업이 당면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IBK기업은행은 이미 중소기업의 금융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4,200억 원 규모의 이자감면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있으며, 혁신기업 발굴과 성장 지원을 위해 윤 행장 취임 후 3년 동안 1조5,000억 원의 모험자금을 공급했다. 아울러 창업육성 플랫폼을 통한 경영 노하우 전수, 금융주치의 프로그램 및 ESG경영 컨설팅 제공 등 비금융 지원에도 힘쓰고 있다.

윤 행장은 마지막으로 "새로운 60년에도 중소기업의 든든한 동반자로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국책은행으로서의 소임에 충실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IBK최고경영자클럽 하반기 경영전략 세미나에 참석한 윤종원 행장 지난 10월 2박 3일간에 걸쳐 진행된 세미나에서 윤 행장은 클럽 회원들에게 감사와 지원의 말을 전했다.



IBK최고경영자클럽 하반기 경영전략 세미나



2022 영남루 포럼



마포 9기
라온버드

천세욱 대표

인공지능을 디자인하는
인공지능

***Start-up Introduction**

2017년 설립된 회사로, 인공지능^{AI} 프레임워크 라온실^{LaonSill}을 개발했으며, 라온실이 글로벌 반도체 회사인 엔비디아^{NVIDIA}의 인공지능 프레임워크에 등재되면서 이를 사업화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다. 현재 인공지능 개발을 자동화하는 서비스 라온에이드^{Laonade}를 개발해 사업화하고 있다.



인공지능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인공지능을 학습시키기 위한 다량의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이 작업을 대부분 사람이 하고 있어 많은 시간과 비용이 발생합니다. 이 과정을 자동화해 시간과 비용을 줄이고 인공지능의 성능을 높이기 위해 라온에이드를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라온버드는 인공지능 프레임워크를 직접 개발할 만큼 기술적인 능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2019년 자동화 머신러닝^{AutoML}과 합성 데이터를 결합한 라온에이드를 서비스한 뒤로 다양한 기술적 노하우를 축적하고, 이를 다양한 산업군에 적용해 왔습니다. 특히 합성 데이터를 활용해 인공지능 성능을 높이는 것은 더 복잡한 문제이지만, 이러한 노하우를 통해 라온버드는 인공지능 성능을 높이기 위해 가장 효과적인 합성 데이터를 만드는 방법을 알고 있기 때문에 향후 시장에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라온버드는 인공지능 도입을 원하는 회사들이 합리적인 비용으로 빠른 시간에 인공지능을 도입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리테일, 유통, 통신, 건설 분야 등의 회사들과 테스트를 진행해 왔으며, 이러한 결과들을 토대로 해당 분야에서 본격적으로 사업화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핵심 기술
합성 데이터 생성 기술,
AutoML



글로벌 합성
데이터 시장 규모
(2024년 예상)

34조 원



IBK창공^{IBK}은 '창공^{창공}을 통해 창공^{창공}으로 비상하라'는 의미를 가진 '창업^{창업}해^해공장^{공장}'의 줄임말로, IBK기업은행이 창업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공간 및 프로그램을 지칭한다.

구로 8기
지엔

조영민 대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융합보안 기업



지난해 11월 국내 신축·대단지 아파트에 설치된 월패드^{Wallpad}가 해킹되어 촬영된 일상생활, 남녀의 알몸 사진, 성행위 장면 등 개인 사생활 영상 및 사진이 다크웹에서 거래되며 국민의 불안감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었습니다. 이러한 IoT 보안 사고를 자동화된 취약점 점검 기술을 통해 사전에 예방하고 점검에 드는 비용과 시간을 줄이기 위해 IoT 보안 취약점 점검 솔루션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최근 국내외 IoT 보안 사고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전 세계적으로 IoT 보안 관련법이 제·개정되고 있으며, IoT 보안 인증 제도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에 따른 자동화 취약점 점검 도구는 전무한 상태에서 지엔의 솔루션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지엔은 최근 '2022 사이버 보안 챌린지(스마트홈 보안 취약점 해킹대회)'에서 솔루션을 통해 예선에서 다수의 취약점을 제보했으며, 본선 대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IoT 보안 취약점 점검 솔루션을 통해 다양한 문제점을 연구하고, 발견된 취약점을 보호할 수 있는 IoT 보안 솔루션을 지속적으로 기획하고 개발할 계획입니다. 그 계획의 일환으로 현재 '머신러닝 기반의 IoT 보안 이상징후 탐지 시스템' 개발을 완료했으며, 베타테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Start-up Introduction**

일상생활, 경제, 사회 전반에 내재화되어 개인화기기, 스마트홈, 모빌리티, 스마트공장, 스마트시티, 더 나아가 메타버스, 디지털 트윈 가상 환경까지 확대 적용 중인 사물인터넷^{IoT}의 보안을 연구하는 융합보안 기업이다.



핵심 기술
IoT 보안 취약점 점검
솔루션



글로벌 IoT 보안 시장 규모
(2027년 예상)
5,664억 달러





민병운 (주)테미스코프 리서치 앤 컨설팅 대표이사
서강대 지식융합미디어대학 겸임교수와 서강 트렌드 사이언스 센터 부센터장을 맡고 있으며, 저서로 <리:티핑 포인트> 등이 있다.

고객 불만은 위기 극복의 기회

요즘처럼 코로나19 팬데믹과 글로벌 경제위기가 이어지는 '만성 위기 상황' 하에서는 고객 불만의 목소리가 커진다. 혹평, 비난, 악플과 같은 부정적인 메시지의 확산 속도 또한 훨씬 빨라진다. 하지만 반대로 이런 고객 불만을 잘 활용한다면 어떻게 될까? 필립 코틀러^{Philip Kotler}는 고객 문제를 잘 해결한다면 재구매율을 높일 수 있고, 입소문 효과까지 달성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성공 사례

고객 불만을 기회로 삼은 면도기 구독 서비스 W사

면도기 구독 서비스를 제공하는 W사는 합리적인 가격에 면도기와 면도날을 고객에게 배송해주고 있었다. 그런데 한 고객의 제품 리뷰가 매우 좋지 않았다. W사의 면도날이 디자인은 괜찮은데 가격만 저렴하고 절삭력이 그다지 좋지 않다는 것이었다. W사는 이를 그냥 지나치지 않고 반전의 계기로 삼았다. 구체적으로 어떤 과정이 위기 극복의 포인트로 작용했을까?

첫째, 고객 불만을 솔루션으로 활용했다. 보통의 기업들은 신제품을 출시하면 고객의 반응을 살피기

위해 설문조사와 같은 소비자 조사를 하곤 한다. 하지만 이런 정량 조사의 경우 고객 불만이 점수화 되기 때문에 고객 불만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는 잘 드러나지 않는다. W사는 이를 피하기 위해 고객 불만이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제품 리뷰에 초점을 맞췄고, 면도날의 절삭력에 불만이 있다는 사실을 파악했다. 그리고 디자인과 가격에는 문제가 없다는 점도 파악하게 되었다. 결국 면도날의 절삭력만 개선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믿었고, 실제로 면도날의 절삭력을 높여 개선된 제품으로 다시 출시했다.

둘째, 고객 불만을 마케팅 포인트로 삼았다. W사는 면도날을 개선한 뒤 리뉴얼된 신제품을 출시하면서 제품 패키지에 실제 고객의 불만 리뷰를 인쇄해 그 불만을 누구나 볼 수 있게 했다. W사 제품에 이런 문제가 있었지만 고객 불만 덕분에 제품을 개선할 수 있었다는 점을 다른 고객들에게도 알리고 솔직하게 소통한 것이다. 그리고 이 자체가 마케팅 포인트가 되었다.

셋째, 불만 고객의 재평가를 통해 입소문 효과를 얻었다. W사는 리뉴얼된 신제품을 그동안 불만 리뷰를 남긴 고객들에게 모두 무료로 배송했다. 그리고 개선된 신제품 사용에 대해 다시 리뷰를 받았다. W사는 그런 과정을 '떠났던 고객들이 돌아온 이유'라는 영상으로 만들었고, 이를 광고로 활용했다. 이 광고는 기존 불만 고객뿐만 아니라 여러 고객들 사이에서 널리 퍼져 나갔고, 자연스럽게 입소문 효과를 얻었다.

W사는 이런 과정을 통해 기존 제품에 불만족을 느꼈던 고객들의 만족도를 90%까지 높였고, 구독을 해지했던 고객 중 2만 명을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었다. 결과적으로 W사는 상위 3개 기업이 시장 점유율 98%를 차지하던 면도기 시장에서 2021년 기준 시장 점유율을 9.3%까지 늘렸다.

- 성공의 한 곳**
- 1 솔루션으로 활용한 고객의 불만
 - 2 고객의 불만을 마케팅 포인트로 활용
 - 3 불만 고객의 재평가를 통한 입소문 효과



실패 사례

고객 불만을 무시해 주가 폭락한 글로벌 항공사 U사



- 실패의 한 곳**
- 1 심리적으로 다루지 않은 고객 불만
 - 2 사건을 덮으려고만 한 안일한 태도
 - 3 문제 해결보다 우선시한 규정

항공사 U사는 공항에서 수화물을 취급하는 과정에서 여러 승객들로부터 수하물을 운반하는 사람들이 짐을 부주의하게 던지고 있다는 불평을 들었다. 결국 한 무명밴드 기타리스트의 고가의 기타가 파손되었고, 그 기타리스트는 U사에 항의하며 보상을 요구했다. 하지만 U사는 자신들은 보상 책임이 없고, 보상 규정도 없다고 대응했다. 결국 그 기타리스트는 U사의 잘못으로 기타가 파손된 경험을 노래와 뮤직비디오로 만들어 유튜브에 공개했고, 한 달 만에 500만 조회 수를 달성했다. 이로 인해 U사는 엄청난 피해를 입게 되었다. 어떤 부분이 문제였을까?

첫째, 고객 불만을 심리적으로 다루려고 하지 않았다. 누구의 잘못이든 우선 고객이 피해를 입은 것이 분명하다면 그에 대한 충분한 위로를 건네고, 그 문제에 대해서 철저히 조사하겠다는 것을 전달하는 게 도리다. 보통 고객이 초기에 불만을 토로할 때는 심리적 위로를 받고 싶고, 문제가 발생한 원인에 대한 의구심을 해소하고 싶기 때문이다. 이는 다분히 심리적인 차원이다. 이때 U사가 고객의 심성 관리에 더 초점을 맞췄다면 큰 문제를 작게 만들 수도 있었다.

둘째, 적합한 문제 해결 프로세스를 거치지 않았다. 사실 기업 입장에서 모든 고객 불만을 정성스럽게 처리하긴 어렵다. 하지만 U사의 문제는 초기 대응 시 그 기타 파손을 해결하려고 진정성 있게 조사를 하기보다는 그저 사건을 덮으려고만 했던 태도에 있었다. 적법한 절차를 통해 조사하고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지를 밝힌 뒤 정당한 귀책 사유와 보상 비율을 밝히는 노력을 했더라면 서로 납득할 만한 결과를 받아들였을 것이다. 이런 절차를 거쳤다면 피해를 입은 기타리스트가 과도한 요구를 했을 때 대중 여론은 U사 측이 될 수도 있었다.

셋째, 고객 불만에 대해 중요한 건 규정보다 예외다. 기타리스트는 공항에서 기타 파손을 인지했

지만 공연이 중요했기 때문에 다른 기타로 공연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보상을 요구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U사는 사고 발생 후 24시간 이내에 보상을 요구해야 하는데, 기타리스트가 규정에 따른 시간을 넘겼기 때문에 보상을 해줄 수 없다고 답했다. U사는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자신들의 규정에 예외는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한 것이다. 결국 U사는 초기에 고객 심성도 관리하지 못했고, 적법한 해결 프로세스도 거치지 않은 채 규정만 앞세워 고객 불만을 무시해 더 큰 화를 불렀다. U사의 이런 입장과 행동을 주제로 한 기타리스트의 노래와 뮤직비디오가 유튜브 500만 조회 수를 넘기자 결국 U사는 사과했지만 나올 동안 주가가 10% 이상 폭락했다. 기업 가치로는 무려 2,500억 원의 손해가 발생한 것이다.



오동업 한국화학연구원 바이오화학연구센터 책임연구원
2015년부터 한국화학연구원에서 연구원으로 활동했으며, 산업통상자원부 우수연구원 표창장 등 다양한 연구 성과를 인정받았다.

탄소중립과 폐기물 저감을 위한 바이오플라스틱

바이오플라스틱이 공해 문제가 없는 신소재로 주목받고 있다. 지속가능경영이 최대 화두가 된 요즘 환경오염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바이오플라스틱의 개념과 활용 가능성에 대해 알아본다.

지금까지 전 세계적으로 83억의 플라스틱이 생산되었고, 그중 9%만 재활용되고 12%는 소각, 79%는 매립되거나 버려졌다. 2018년 5월 환경부에서는 '재활용 폐기물 종합대책'을 발표해 국내 일회용품에 대한 규제 정책을 시행했으나,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비대면 문화가 자리 잡아 배달용 포장재의 증가로 이어지면서 폐기물 발생량은 오히려 증가했다. 플라스틱 폐기물의 급격한 증가는 대한민국과 같이 국토 면적이 좁은 국가에서 매립지 확보에 큰 사회적 비용이 발생한다. 또한 유기된 플라스틱은 풍화작용에 미세플라스틱으로 변환되어 바다로 유입되고 해양 생태계를 교란한다.

탄소중립에 기여하는 바이오플라스틱

바이오플라스틱(Bioplastic)을 정의하기 위해 플라스틱을 2가지 관점에서 분류할 필요가 있다. 플라스틱은 생산 원료에 따라 석유 및 바이오매스 유래 고분자 물질로 분류할 수 있다. 또한 미생물에 의해 생분해될 수 있는 것과 그렇지 못한 것으로 나눌 수 있다. 2가지 기준에 의해 플라스틱은 총 4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① 바이오매스로 만든 생분해 플라스틱

PLA, PHA, PBS, 천연고분자 (셀룰로오스, 리그닌 등)

② 바이오매스로 만든 비분해 플라스틱

Bio-PET, Bio-LDPE, Bio-PP, Bio-PA(Nylon)

③ 석유로 만든 생분해 플라스틱

PBAT, PBS, PCL

④ 석유로 만든 비분해 플라스틱

기존의 대부분 플라스틱

바이오 물질로 만든 비분해 플라스틱(비분해 바이오플라스틱)은 바이오매스 유래 물질을 활용해 기존의 석유 플라스틱인 PET, LDPE, PP와 동일한 화학구조를 지닌 플라스틱을 생산하는 것이다. 바이오 물질은 광합성에 의해 공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로 만들어지므로, 그것이 분해되든 그렇지 않든 바이오 유래 물질로 만든 플라스틱은 탄소중립에 기여한다.



바이오플라스틱으로 만든 다회용기 스타트업 푸들은 배달음식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플라스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아이디어로 바이오플라스틱을 이용한 다회용기 푸들 플레이트를 개발했다.

급격하게 성장하는 친환경 플라스틱 시장

바이오플라스틱 시장 성장의 장애 요인은 경제적인 것과 공학적인 것으로 나눌 수 있다. 경제적인 관점에서 바이오플라스틱은 기존 석유계 플라스틱과 비교하면 아직 가격이 비싸다. 이러한 점은 생산 규모가 증대되면 규모의 경제에 의해 바이오플라스틱의 가격이 충분히 낮아질 수 있다. 또한 최근 국제기구들이 각국에 환경오염에 대한 책임을 묻고 있으며, ESG경영이 강조되고 있어 각종 페널티와 인센티브가 가격 격차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학적인 이유는 바이오플라스틱이 기존의 석유 플라스틱에 비해 열적·기계적 성능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비분해 바이오플라스틱의 경우 화학구조가 석유계 플라스틱과 같아 이러한 단점이 잘 드러나지 않지만, 생분해 플라스틱의 경우 그 특성이 뚜렷하게 나타난다. 전 세계 바이오플라스틱 생산 규모는 현재 연간 500만~700만 톤 정도로 전체 플라스틱의 2%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현재 비중이 크지 않지만, 연평균 성장률 18%로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바이오플라스틱 세계 시장 규모는 2021년 150억 달러 정도이고, 절반은 생분해 플라스틱, 또 다른 절반은 비분해 바이오플라스틱이 차지한다.

각국 정부의 규제는 바이오플라스틱 시장을 성장시키는 데 촉매제가 된다. 중국 정부는 '플라스틱 오염관리 강화 제언'을 발표해 일회용품의 원료를 생분해 플라스틱으로만 제한했다. 중국 정부의 정책으로 인해 PBAT는 2017년 8만 톤 수준에서 2022년 18만 톤 규모로 생산량이 증가했다. 유럽연합(EU)은 유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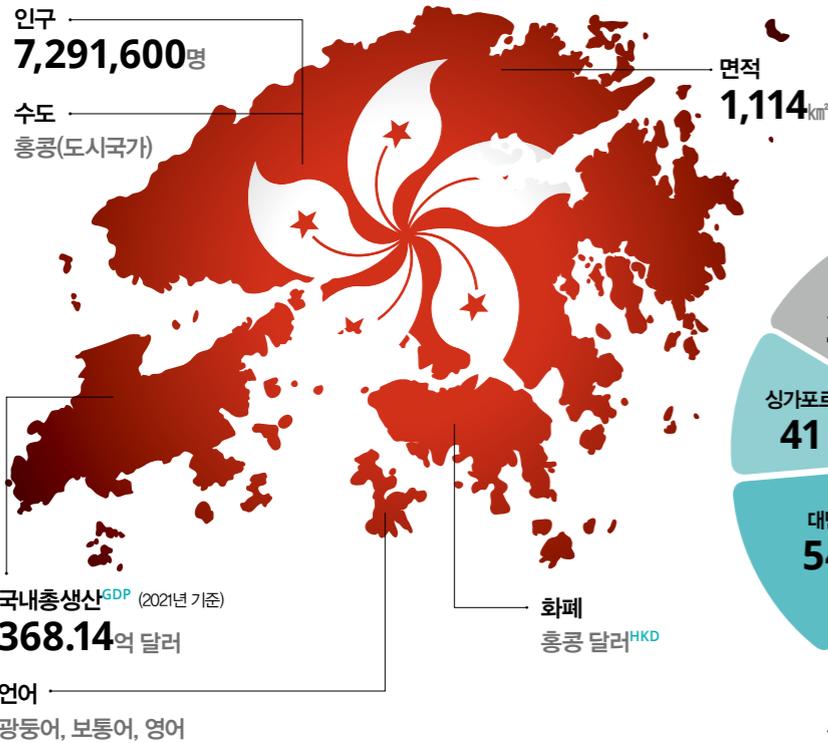
2020 혁신 연합, 자원 효율성 전략, 호라이즌 2020, 순환경제 패키지 등 다양한 정책 이니셔티브 및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EU는 일회용 플라스틱 식기, 플라스틱 빨대, 폴리스타일렌 컵, 식품용기 등의 제품을 금지하고, 포장재 생산 시 바이오 기반 재료를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최근 국내 기업들의 바이오플라스틱에 대한 투자도 뜨겁다. LG화학은 고부가 친환경 소재에 2조6억 원 투자를 발표했으며, 옥수수 성분의 포도당과 페글리세롤을 활용한 유연 PLA를 개발하고, 지속가능성 탄소(SCC) 플러스 인증을 획득해 상용화를 추진하고 있다. LG화학, SKC, SK지오센트릭-코오롱인더스트리 등이 PBAT 생산시설 설치 계획을 잇달아 발표하고 있다. CJ제일제당은 2016년 메타볼릭사에서 PHA 제조 기술을 인수한 후 결정성·비결정성 소재 2종에 대한 성능 증가를 추진하고 있으며, 인도네시아에 연당 5,000톤 규모의 생산시설을 설치해 비결정 PHA의 상용화를 완료했다. 생분해 플라스틱뿐만 아니라 비분해 바이오플라스틱 원료 생산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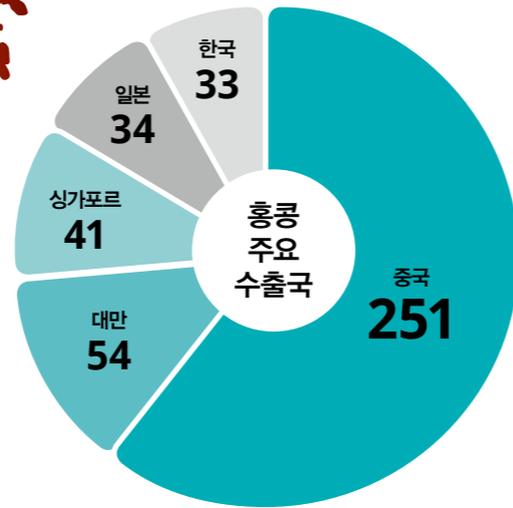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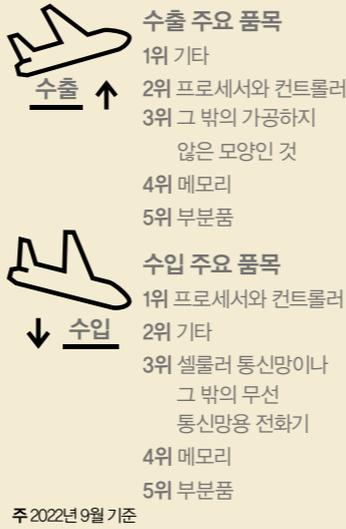
바이오플라스틱의 국내 생태계를 보다 빨리 확립시키기 위해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한다. 단기적으로 유계 비분해 플라스틱으로 제조 시 재활용이 어려운 아이템(어구, 어망, 농촌용 멀칭 필름, 수의용품)에는 대체 소재인 생분해성 플라스틱 제품 사용을 권장한다. 장기적으로 중국 및 유럽 등 바이오플라스틱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시장에 맞춰 생분해 플라스틱뿐만 아니라 비분해 바이오플라스틱 제품을 적극 개발해야 한다.

물류 산업으로 재도약 꿈꾸는 홍콩

무역 및 물류 산업에 주력하는 홍콩은 최근 다양한 물류 산업 육성 정책을 마련 중이다. 이를 바탕으로 향후 중국 및 동남아시아 시장 진출을 위한 거점으로 홍콩을 활용하려는 한국 기업들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와의 교역 현황 순위 및 비중 수출 5위, 수입 43위



주 2020년 기준 단위 십억 달러 자료 한국무역협회

전체 수출입량 단위 천 달러



소비 성향

홍콩은 중국인 관광객이 가장 많이 찾는 도시로 코로나19 이전 유통 시장 매출의 35%는 중국 본토 관광객들이 기여했다. 홍콩의 가장 큰 쇼핑 시즌은 크리스마스(12월 말), 여름(7~8월) 세일, 블랙 프라이데이(11월 넷째 주 목요일)이지만, 중국 본토의 노동절 황금주 연휴(5월 1~7일), 국경절 황금주 연휴(10월 1~7일) 기간 홍콩을 방문하는 중국 본토 관광객이 늘어 화장품, 생활용품, 명품, 시계 등에 대한 소비가 급증한다.



한국 상품 이미지

한류 열풍이 홍콩에서 수년간 지속되면서 홍콩 소비자들은 한국의 문화, 제품에 대해 이해도가 높은 편이다. 지난 몇 년간 한국에서 돌풍을 일으켰던 허니버터칩, 불닭볶음면, 쫄면, 초코칩, 에어프라이어용 식품, 닭가슴살 등이 홍콩 소비자들 사이에서도 크게 유행했으며 현재까지도 인기가 있다. 한국 제품은 대부분 '가격 대비 우수한 품질'이라는 인식이 있는데, 특히 화장품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낸다. 유럽, 미국, 일본 화장품은 인지도가 높고 비싼 화장품이 많은 편이지만, 한국 화장품은 가격대 폭이 넓어 고급 라인부터 중저가 학생용까지 옵션이 다양한 소비자들의 접근성이 높다.



상거래 유의사항

홍콩 내 전자상거래 시장이 급속히 발전하면서 국내 기업들이 오프라인 판매뿐만 아니라 HKTV 몰 HKTVMail, 빅빅채널 Big Big Channel 등의 전자상거래 기업을 통해 홍콩 시장에 진출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다. HKTV 몰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온라인 쇼핑이 늘어나면서 2021년 플랫폼 교역액이 전년 대비 10.4% 상승한 65억7,000만 홍콩 달러(약 8억5,104만 미 달러)를 기록했으며, 이용자 수가 128만 명을 돌파했다. 홍콩의 임대료, 인건비 등 운영 원가가 상대적으로 높아 온라인 판매는 경영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다.

홍콩 정부의 물류 산업 육성 정책



물류 산업에 힘주는 홍콩 정부 홍콩 해운 항만국은 더 많은 해양 운송 기업들을 유치하기 위해 해운업 관련 기업들에 세금 할인 혜택을 확대 제공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홍콩 해운항만국은 스마트 항만 Smart Port* 개발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전담팀을 구성했다. 스마트 항만 개발을 통해 항만 시스템이 디지털화되면 화물 처리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홍콩의 항공 화물운송 부문은 항공 노선 네트워크가 잘 구축되어 있고, 간단하고 빠른 통관 절차로 세계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향후 홍콩 정부는 대만구 Great Bay Area, GBA와의 글로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각종 수송기관을 통합할 계획이다. 홍콩 공항 당국 Airport Authority은 중국 광둥성 중남부에 위치한 동관에 홍콩 국제공항 상류 물류 단지 Upstream HKIA Logistics Park 및 홍콩 국제공항에 해공 연계 통합 화물터미널 Airside Intermodal Cargo Handling Facility을 설치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중국 본토에서 수출되는 상품이 사전 보안검사를 마친 후 홍콩으로 원활하게 운송될 수 있으며, 이후 추가 보안심사를 거치지 않고 홍콩 국제공항을 통해 모든 해외 행선지로 직송되어 양질의 편리한 운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하반기에는 홍콩의 출입국 제한 완화 및 내수시장 회복 전망 등에 따라 물류 산업이 다시 성장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국제 연료 가격 상승, 러·우 전쟁 그리고 미·중 갈등 등으로 글로벌 공급망 위기가 우려됨에 따라 안정적인 산업 공급망을 구축하기 위한 기업과 정부의 협력이 중요한 시점이다.

*스마트 항만 항만의 자동화, 지능화를 통해 항만의 다양한 정보가 실시간 연계되고 물류 흐름을 최적화한 항만.



서경란 IBK경제연구소 중소기업·산업연구실장
전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 전 청와대 중소벤처비서관실 행정관으로 일했다.



對세계 공급망 재편 대응으로 확대되는 소부장 정책

지난 10월 산업통상자원부가 '소부장 경쟁력 위원회'를 열었다. 지난 2019년 일본의 수출 규제에서 시작된 소재·부품·장비(이하 소부장) 대응 방안을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미·중 간 기술패권 경쟁 심화 등 변화된 세계 경제 환경에 맞춰 재설계하기 위함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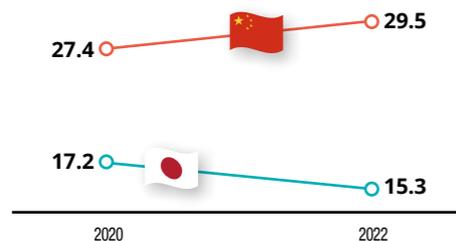
일본 대응 소부장 대책, 중국 의존도는 높아
별써 3년 전, 2019년 7월 일본 정부의 갑작스런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3대 핵심 소재 수출 규제는 글로벌 공급 질서를 뒤흔들었다. 우리 정부는 '소재·부품·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을 전면 개정하면서 일본 의존도가 높은 품목 중 산업 파급 효과와 중요성을 감안해 6대 분야에서 '100대 핵심 전략 기술'을 선정, 총 9,525억 원의 국가연구 개발 예산을 투입했다. 국산화에 성공한 소부장 제품을 국내 수요기업이 사들이도록 해외 인수·합병^{M&A} 관련 세금을 지원하고, 소부장 기업에 투자하는 1조 6,000억 원 규모의 펀드도 조성했다. 범정부 차원의 집중 지원과 기업의 순발력 있는 대응으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실제로 일본 수출 규제에 대응하는 소부장

정책을 통해 대일 의존도가 2022년 상반기 기준으로 15.3%로 역대 최소를 기록하는 등 성과는 분명하다. 다만, 소부장 대^외중 의존도는 지속 증가해 2012년 24.9%, 2020년 27.4%를 거쳐 2022년 상반기 29.5%를 기록했다. 결과적으로 급변하는 글로벌 공급망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어려워 지난해 요소수 사태에 적기에 대응하지 못하는 등 한계점도 일부 존재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대세계 공급망 재편 대응 대책으로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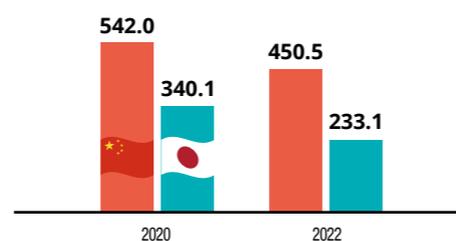
산업통상자원부는 새 정부 출범 이후 지난 10월 처음으로 '소부장 경쟁력위원회'를 열었다. 위원회에서는 최근 러·우 전쟁 장기화, 미·중 간 기술패권 경쟁 심화 등 대내외 여건 변화에 대응한 소부장 정책의 재설계가 필요하다는 데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대중·대일 소부장 수입액 비중



단위 % 주 2020년 1~7월 기준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대중·대일 소부장 수입액



단위 억 달러 주 2020년 1~7월 기준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새 정부의 소재·부품·장비 산업 정책'은 크게 3가지 방향으로 설명된다. 첫째, 그간 일본 수출 규제 대응, 주력 산업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던 100대 핵심전략기술을, 대세계 공급망 및 미래 첨단 산업까지 고려해 150개로 확대·개편한다. 확대된 핵심전략기술 중심으로 연구·개발^{R&D}, 세제, 규제 패스트트랙, 으뜸기업 선정 등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미래 산업 분야 R&D 비중도 확대한다. 또한 급변하는 글로벌 공급망 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 핵심전략기술을 주기적으로 재검토해 개편을 추진한다. 이에 따라 지난 약 5개월간 200여명의 산학연 전문가가 참여한 기술적 검토 및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기존 100대 기술 중 13개 삭제, 신규 기술 63개 추가 등 총 150개 핵심전략기술 후보군을 발굴해 이번 경쟁력위에서 심의·확정해 발표했다.

둘째는 '소부장특별법' 개정을 통해 공급망 정보 분석, 리스크 관리 등 산업 부문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이다. 공급망 안정 품목을 신설해 국내 산업과 국민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와 같은 원소재·범용품도 집중 관리하고, 단일 기업 또는 복수 기업 간 핵심 품목 공급망의 효율화와 안정화를 위한 기술 개발, 국내외 생산시설 구축, 컨설팅, 재고 확대, 규제 개선, 국제협력 등 소부장 공급망 안정 사업을 신규 추진한다.

셋째로는 그간의 국내 수요-공급기업 중심의 협력 사업을 넘어, 해외 수요-국내 공급기업 간 공동 R&D 등 협력 범위를 확대한다. 기술 개발 및 상용화에 성공한 과제에 대해서는 해당 기업의 수요 조사를 통해 글로벌화 지원(무역금융, 인증 등)까지 자동 연계하고 주요

수입 품목의 국산화를 넘어, 글로벌 공급망 재편을 소부장 기업의 수출 기회로 활용하는 '소재·부품·장비 글로벌화 전략'을 수립한다는 내용이다.

그 밖에도 이미 추진된 소부장 협력 모델은 올해 9건을 신규로 승인해 현재까지 총 50건을 승인했다. 협력 모델을 통해 해외 수입에 절대 의존하던 품목의 조기 사업화, 국내 공급망 확보 등의 성과가 본격 창출 중이며 가속화될 전망이다. 소부장 협력 모델로 선정되면 4~5년간 약 900억 원 규모의 R&D 지원, 사업화 시설 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 인력 및 규제 특례 제공 등 원스톱^{One-stop} 패키지를 지원하니 많은 관심을 가져보길 바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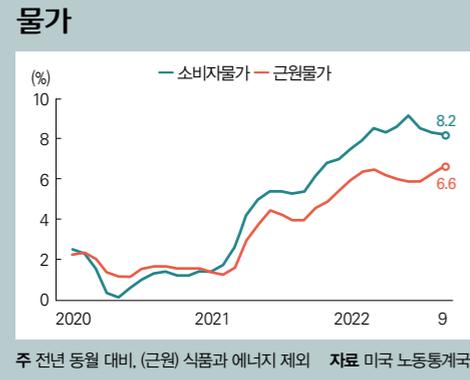
150개의 핵심전략기술

분야	품목 수	주요 내용
반도체	기존 17개 → 32개로 확대	반도체 공정에 필요한 소재(불화수소 등) 중심에서 패키징 후공정, 증착과 같은 공정 기술까지 확대 메모리 반도체 기술뿐 아니라 시스템 반도체(비메모리) 기술까지 포함
디스플레이	기존 10개 → 14개로 확대	현재의 주력 모델인 유기발광다이오드 ^{OLED} 기술 중심에서 미래 차세대 디스플레이(확장현실 ^{XR} , 마이크로 발광다이오드 ^{LED} , 플렉서블) 기술 중심으로 확대 개편
자동차	기존 13개 → 15개로 확대	내연차 중심(수소차 관련 일부 포함)의 기술에서 전기차 등 미래 차에 필요한 핵심 기술(구동모터용 고속 베어링, 차세대 와이어링 하네스)을 추가
기계금속	기존 38개 → 44개로 확대	기계 전통 기계 산업용 장비(공작기계 등) 중심에서 항공용 가스터빈 등 고부가 산업용으로 전환 고속 마그네슘, 알루미늄 등 대외 의존도가 높은 기초소재 기술 개발
전기전자	기존 18개 → 25개로 확대	상용 2차전지의 핵심 소재(양극재, 음극재, 전해질, 분리막)의 자립화에서 고성능, 고안전 차세대 전지(전고체 전지 등) 기술로 확대 태양전지, 수전해용 전극 소재 등 특정국 의존 품목도 신규 포함
기초화학	기존 4개 → 15개로 확대	일본 강점의 정밀화학제품에서 친환경(셀룰로오스계 인조섬유), 저탄소(리사이클 섬유 소재), 미래 유망(엔지니어링 복합 소재) 등 확대
바이오	기존 0개 → 5개로 확대	코로나19 등 감염병 위기 대응을 위한 자체 기술력 확보의 중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바이오 분야에 대한 핵심전략기술 신규 확대 * 백신 개발 시급성 및 업계 수요 등을 고려해 백신 및 첨단 바이오의약품 4개 기술은 우선 반영(9차 위원회 심의 → 고시 개정 2022. 6. 24)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새 정부 소재·부품·장비 산업 정책방향' 주요 내용 요약

한눈에 읽는 경제 동향

USA



물가 상승 압력 속 견조한 노동수요 지속
 9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전년 동월 대비, 8.2%)은 에너지 가격(23.8% → 19.8%)의 하락으로 3개월 연속 하락했다. 다만 주거비, 교통비 등 광범위한 서비스 가격(6.1% → 6.7%)의 강세로 근원물가(6.3% → 6.6%) 상승 폭은 4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높은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한 고강도 통화 긴축 정책이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9월 비농업 부문 취업자 수는 전월 대비 26.3만 명이 증가하고 실업률(3.7% → 3.5%)이 하락하는 등 견조한 고용 흐름세가 유지되고 있다. 반면 경제활동 참가율(62.4% → 62.3%)은 전월보다 소폭 하락해 노동 수급 불균형은 지속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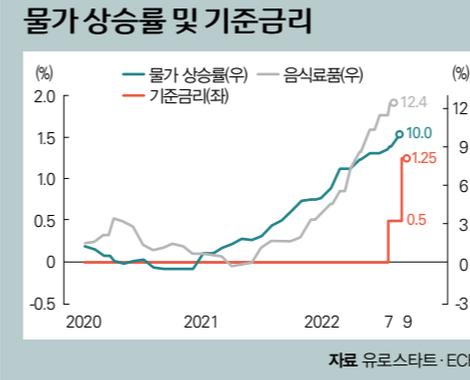


9월 산업생산과 소매판매는 전월 대비 각각 증가와 보합으로 나타나면서 경기 회복세 지속
 9월 산업생산은 제조업(0.4%)과 광업(0.6%) 등의 생산 증가에 힘입어 전월 대비 0.4% 증가했고, 설비가동률도 전월(80.0%) 대비 소폭 늘어나 80.3%를 기록하면서 시장의 기대를 상회했다.
 9월 소매판매는 자동차(-0.4%), 전자제품(-0.8%) 등 13개 부문 중 7개 부문이 전월보다 감소했지만, 외식(0.5%), 잡화(0.7%), 식료품(0.4%) 등의 판매가 증가하면서 전월과 보합을 유지했다. 최근 산업생산과 소매판매는 수개월 혼조세를 보이고 있지만 전반적인 경기는 2020년 3월 이후 회복세를 지속하고 있다.



제조업 심리는 다소 개선되었으나 소비자물가 상승세는 우려 요인
 9월 제조업 PMI는 전력 부족 등에 따른 생산 차질 완화 및 정부 부양책에 대한 기대 등으로 3개월 만에 기준치를 상회하는 50.1을 기록했다. 주요 항목별로는 생산, 신규 주문, 고용 부진이 개선되었으며, 원자재 재고, 공급자 배송 시간 등은 부진이 심화되었다. 소비자물가는 사료용 옥수수 가격 급등의 영향을 받은 돼지고기(36.2%)를 비롯해 과일(17.8%), 채소(12.1%) 등 식품 가격이 크게 오르며 29개월 만에 최고치인 2.8%를 기록하며 상승세를 지속했다. 현 추세가 지속되면 정부 물가관리통제선인 3%를 넘어설 가능성도 있다.
 ※ 제조업 PMI: 47.4(2022.4) → 49.6(5) → 50.2(6) → 49.0(7) → 49.4(8) → 50.1(9)
 ※ 소비자물가(전동비, %): 3.3(2020.4) → 2.5(2022.6) → 2.7(7) → 2.5(8) → 2.8(9)

Chin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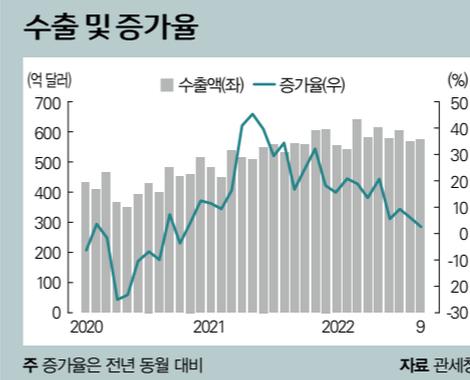
두 자릿수 물가 상승률, 축소 배고픈 유럽
 지난 9월 자이언트 스텝(기준금리 0.75%포인트 인상)을 단행한 유럽중앙은행(ECB)에 또다시 선택의 시간이 돌아왔다. 9월 유로존의 전년 대비 물가 상승률은 10%를 기록해 하반기 들어 매월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당초 제기된 천연가스발 경기 침체 우려는 독일의 천연가스 비축량이 전체 저장 용량의 95%를 상회(10월 기준)하면서 줄어드는 모양새다. 하지만 에너지(51.9%)를 필두로 식품(12.4%) 역시 물가 상승을 이끌면서 유럽 경제의 겨울위기는 아직 현재 진행형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0.3%)와 국제통화기금(IMF)(0.5%)이 내년도 유로존 경제성장률을 1% 미만으로 전망하는 등 그 어느 때보다도 추운 겨울이 예상되고 있다.

Eurozone



인플레 압력 2개월 연속 축소, 고용 시장은 전반적으로 양호
 9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5.6%(전년 동월 대비)로 2개월 연속 하락하며 안정세를 보였다. 개인서비스(6.1% → 6.4%)의 오름폭은 확대됐으나, 국제 유가 하락, 정부의 유류세 인하 정책 등의 영향으로 석유류(19.7% → 16.6%)의 상승 폭 둔화가 지속되며 물가 상승 압력이 감소했다.
 9월 취업자 수는 2,838.9만 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70.7만 명 증가했다. 취업자 수가 19개월 연속 증가하고 15세 이상 고용률이 62.7%로 9월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고용 시장은 전반적으로 양호한 모습이다. 그러나 지난해 기저효과와 경기 불확실성 확대 등의 영향으로 취업자 수 증가 폭은 2022년 5월 이후 둔화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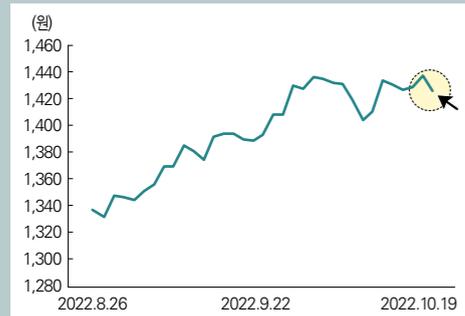
Korea



수출은 23개월 연속 증가세를 유지했으나, 증가율은 둔화
 9월 수출(574.5억 달러)은 글로벌 경기 부진에도 불구하고 역대 9월 수출액 1위를 달성하며 전년 동월 대비 2.7% 증가했다. 품목별로는 석유제품(51.3%)이 19개월 연속 큰 폭 증가한 반면, 반도체(-5.0%) 수출은 전년 동월의 기저효과와 소비자 구매력의 감소 등으로 2020년 4월 이후 29개월 만에 2개월 연속 감소했다. 국가별로는 중국(-6.5%)으로의 수출이 4개월 연속 감소한 반면, 미국(16.0%)으로의 수출은 25개월 연속 증가했다. 10월 1~10일 수출은 반도체(-20.6%), 석유제품(-21.3%) 등이 감소해 전년 동월 대비 20.2% 감소, 조업일수 고려 시 12.2% 감소했다.

Exchange Rate

원/달러 환율 동향



주 매매기준율 자료 한국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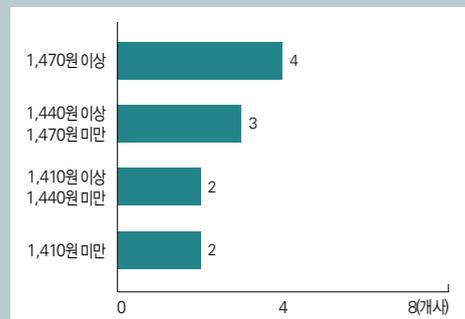
10월 원/달러 환율은 1,400원을 넘어서 상승세 지속 (2022.9.23일 1,408원—9.29일 1,436.5원—10.19일 1425.6원)

9월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이후 달러 가치 강세 기조에 주변국 통화 약세, 무역수지 적자 우려 등이 더해지면서 10월 원/달러 환율은 1,400원을 상당폭 상회했다. 다만, 중국 당국이 위안화 개입을 강화하자 위안화 가치 상승 기대에 원/달러 환율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11월 원/달러 환율은 큰 변동성 속에서 고회율 추세 지속

11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기준금리를 50bp 이상 인상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달러화 강세는 지속될 전망이다. 한국은행이 11월에도 기준금리를 50bp 올릴 것으로 전망되지만 환율 상승세를 진정시킬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주요 IB 환율 전망



주 2022년 4분기 자료 블룸버그

2022년 4분기 말 환율 전망은 1,450원

블룸버그에서 종합하는 주요 IB(11개사)의 2022년 4분기 말 원/달러 환율 전망은 평균 1,450원으로 조사되었다. '1,470원 이상'으로 전망한 IB가 모건 스탠리(1,480원) 등을 포함해 4개사로 가장 많았다. 최솟값은 1,400원, 최댓값은 1,500원으로 나타났다.

2023년 1분기 말 환율 전망은 1,450원

2023년 1분기 말 원/달러 환율에 대해 주요 IB들은 평균 1,450원으로 전망했다. 환율 전망치의 최솟값은 1,410원, 최댓값은 1,520원으로 나타났다.

* 환율 전망 응답 시기: 2022.9.23.~10.17일

Small Business Trends

생산



자료 통계청

생산, 전월 대비 증가

2022년 8월 중소기업 생산은 전월 대비로는 0.2% 증가했으며, 전년 동월 대비로는 2.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전월 대비 자동차(8.8%), 기계장비(6.9%), 기타운송장비(4.0%) 등에서 증가했으나, 반도체(-14.2%), 화학제품(-5.0%), 전기장비(-4.4%) 등에서 감소했다. 전년 동월 대비로는 자동차(22.3%), 기계장비(7.6%), 의약품(14.5%) 등에서 증가했으나, 전자부품(-24.6%), 화학제품(-13.1%), 반도체(-1.7%) 등에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 생산증감률은 중소기업, 대기업을 모두 포함한 수치임.

가동률 및 재고



자료 중소기업중앙회·통계청

가동률, 전월 대비 하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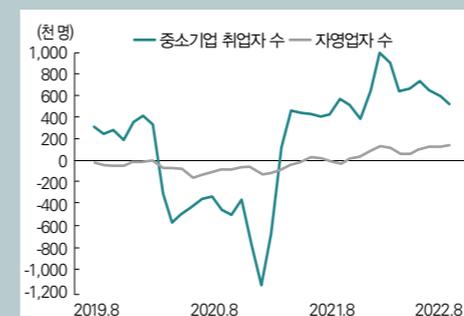
2022년 8월 중소기업 전체 평균가동률은 전월 대비 하락한 71.8%를 기록했다. 세부적으로는 소기업(5~49인)은 전월 대비 보험인 68.9%, 중기업(50~299인)은 0.7%포인트 하락한 74.6%로 조사되었다.

재고, 전월 대비 증가

2022년 8월 중소기업 재고는 전월 대비 0.5% 감소했다. 업종별*로는 전월 대비 반도체(3.8%), 자동차(4.1%), 통신·방송장비(18.0%) 등에서 증가했으나, 전기장비(-7.9%), 전자부품(-12.4%), 석유정제(-13.4%) 등에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 재고증감률은 중소기업, 대기업을 모두 포함한 수치임.

고용



주 전년 동월 대비 자료 통계청

취업자 수, 전년 동월 대비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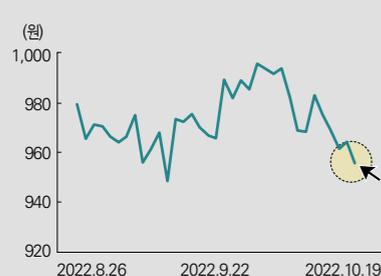
2022년 8월 중소기업* 취업자 수는 전년 동월 대비 53만6,000명이 증가했다. 세부적으로는 종업원 수 5인 미만 중소기업에서 1,000명 증가, 5인 이상 299인 이하 중소기업에서 53만4,000명이 증가해 전체 중소기업 취업자 수는 2,535만3,000명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은 종업원 수 299인 이하.

자영업자 수, 전년 동월 대비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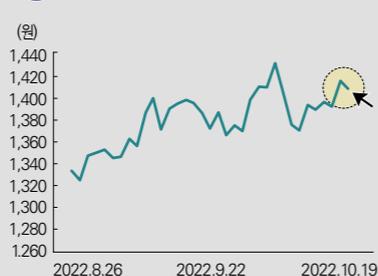
2022년 8월 자영업자 수는 전년 동월 대비 14만 명이 증가해 569만 명을 기록했다.

원/100엔 환율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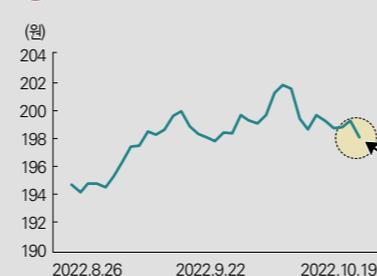
주 서울외국환중개 고시 기준 자료 한국은행

원/유로 환율 동향



주 서울외국환중개 고시 기준 자료 한국은행

원/위안 환율 동향



주 매매기준율 자료 한국은행



에너지 다소비 지역에서 친환경 제조 공간으로 여수산단은 산단의 3대 구성 요소인 산업·공간·사람을 중심으로 산단별 특성을 고려해 디지털 전환, 에너지 혁신, 친환경화를 중점 추진하고 있다.

세계적인 종합석유화학공업기지 여수국가산업단지

서울 여의도 10배 면적에 정유, 석유화학, 비료 등 관련 기업들이 입주해 있는 여수국가산업단지(이하 여수산단)는 국내 전체 생산능력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최근에는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추진으로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

여수산단은 정유, 석유화학, 비료 등의 기업들이 입주해 있는 세계적인 종합석유화학공업기지다. 주요 입주 업종은 정유, 석유화학, 비료다. 이 중 정유 능력은 하루 78만 배럴 규모다. 전체 국내 처리 능력의 26%에 해당한다. 대표 기업은 GS칼텍스다. 석유화학은 에틸렌을 기준으로 연산 366만 톤이다. 이는 국내 총생산능력의 약 47%에 이른다. 대표 기업은 LG화학, 롯데케미칼, 여천NCC 등이다. 비료는 연산 136만 톤에 이른다. 이는 국내 총생산능력의 약 33%에 해당한다. 대표 기업은 남해화학이다. 그렇다고 대기업만 있는 것은 아니다. 전체 입

주 기업의 평균 근로자 수는 84명꼴이다. 중소기업이 대부분이라는 의미다. 여기엔 기계 관련 기업들도 상당수 포진하고 있다. 여수산단의 전체 생산액을 보면 2015년 69조3,890억 원에서 2021년 75조4,319억 원으로 6년 새 8.7% 증가했다. 이 기간 중 수출액은 301억 4,200만 달러에서 307억 달러로 1.9% 늘었다. 고용인원은 같은 기간(연말 기준) 1만9,326명에서 2만4,787명으로 28.3% 증가했다.

산업·공간·사람 중심의 대대적 전환

여수산단은 스마트그린산단 추진 단지로도 지정되었다. 이 정책은 제조업이 모여 있고, 고탄소·저효율 에너지 다소비 지역이자 환경오염 다발 지역인 산업단지를 첨단·신산업이 육성되는 친환경 제조 공간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세부 추진 전략은 산단의 3대 구성 요소인 산업·공간·사람을 중심으로 산단별 특성을 고려해 디지털 전환, 에너지 혁신, 친환경화를 중점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우선 산단을 디지털화해 첨단 산업 거점으로 육성한다. 이를 위해 디자인제조혁신센터, 공

정혁신시물레이션센터, 혁신데이터센터, 공유형 물류 플랫폼 등 가치사슬(밸류체인)의 단계별 디지털 지원 인프라를 구축하게 된다. 아울러 그린과 디지털의 융합을 통해 저탄소·친환경 공간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저탄소·고효율의 에너지 혁신 선도 기지를 구축하기 위해 산단별로 특화된 자원순환 시스템을 만들어 친환경 청정산단을 구현하는 것이 목표다. 통합관제센터 구축으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물류의 스마트화·친환경화도 추진된다.

이와 관련해 여수의 '디지털 환경·안전 통합관제센터' 구축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 사업은 환경·안전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산단 통합관제 시스템을 고도화하는 사업이다. 이는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사물인터넷^{IoT} 기반 환경오염 측정 시스템 △디지털 트윈 기반 지리정보시스템^{GIS} 등을 2023년까지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통합관제센터 구축사업의 주요 내용으로는 여수산단 삼동지구(지원시설구역) 내에 △환경 모니터링 시스템 △대기오염 측정 장치 △지능형 폐쇄회로TV^{CCTV} △지하배관망^{GIS} △파이프랙 구조 안전성 모니터링 △유해가스 누출 감시 모니터링 △위험 확산 예측 플랫폼 등을 구축하는 것이다. 국민이 체감하는 안전한 산단, 탄소 절감을 선도하는 산단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것이다.

지속 가능한 사업 위한 준비

아울러 진행되는 산단 대개조 사업은 산단 일자리 창출과 제조업 혁신을 위해 일자리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고용노동

부, 중소벤처기업부, 국토교통부 등이 참여하는 범부처 협력사업이다.

이는 산업 여건 변화로 도시화 등에 대한 대응이 부족하고 산단의 활력이 저하되면서 산단 주변부 및 산업 생태계와 부조화 문제가 발생하는 것에 대처하기 위한 사업을 의미한다. 이를 위해 산단과 주변 지역의 제조·근무·입지 경쟁력을 강화해 산단을 지역 주도의 일자리 창출 선도 거점으로 육성하는 정책이다.

여수산단은 인근 광양산업단지 및 울촌1산업단지와 연계해 2차전지플랜트 산업과 연관된 저탄소·지능형 소재부품 산단을 조성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 여수시는 이런 움직임과 더불어 지속 가능한 수소 산업과 수소경제 중심의 도시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동북아시아 액화천연가스^{LNG} 허브터미널을 통한 수소 생산·공급 전진기지를 조성하고 여수산단 내 블루·그린수소 산업을 적극 육성할 계획이다.

이 계획의 일환으로 △여수산단에 수소연료전지 플랫폼을 구축하고 묘도동과 중흥동에 수소연료전지 발전소 2기를 건설 △울촌2산단, 묘도일반산단을 대상으로 수소와 소재·부품 산업단지를 조성 △여수산단 기업에 고효율 설비를 확대하고 저탄소 연료로 전환 △여수산단 대개조 사업과 함께 스마트그린산단을 조성하고 산단 입주 기업들의 RE100 참여를 독려할 계획이다. 스마트그린산단 추진사업과 산단대개조 사업이 제대로 시행되면 시간은 걸리겠지만 여수산단은 낡은 이미지에서 벗어나 좀 더 쾌적하고 안전한 단지로 탈바꿈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전체 면적

3,163만 ㎡

산업용지

2,282만 ㎡



입주 기업

294개사
(가동 기업은 264개사)

주요 업종

정유, 석유화학, 비료

대표 기업

GS칼텍스,
LG화학, 롯데케미칼,
여천NCC,
남해화학 등



생산액

75조 4,319억 원



수출액

370억 달러



고용 인원

2만 4,787명

주 2021년 기준
자료 한국산업단지공단

항로표지 장비 및 용품 기업

(주)엠에스엘테크놀로지

엠에스엘테크놀로지는 세계적인 항로표지 장비 및 용품 기업이 되겠다는 목표로 2011년 4월 설립되었다. 창업자인 김기원 대표는 연구소에서 항로표지용품을 개발해 온 경험을 살려 회사를 설립했다. 주력 제품은 △등명기 Beacon(등대에 들어가는 조명으로 밤에 주위를 밝게 비추는 기기) △부표 Buoy △조사등 Luminating Light(암초 등 위험성을 표시하기 위해 설치하는 등기구) △무신호기(안개, 눈, 호우, 연무 등에 의해 시계가 좋지 않을 때 음향을 발생시켜 선박에 그 위치를 알리는 기기) 등이다.

김 대표는 “모든 항로표지용품에 정보기술 IT 기능을 접목시키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해상의 열악한 전원 환경을 고려해 모든 제품이 저전력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제품을 개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선박의 안전한 항행 및 원활한 해상교통을 위해 최적화된 해상교통 시설의 기획, 신뢰성 있는 제품 제작, 성실 시공, 최적의 기능이 유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이런 기술을 바탕으로 새로운 분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기술 개발을 바탕으로 세계 진출 준비 엠에스엘테크놀로지는 국제항로표지협회 IALA 회원 가입을 통해 세계 시장 진출을 모색하고 있다.

중합플랜트 기업

(주)케이엠티

케이엠티는 기계설비 공사, 고압가스 시공, 기계 정비보수, 토공사, 강구조물 공사, 비계·구조물 해체공사 등과 함께 전문 소방시설 공사, 산업환경설비 공사를 한다. 여수 이외에 충남 대산에도 공장을 두고 있으며 여수산단과 대산석유화학단지에서 플랜트·배관·설비공사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전체 임직원은 146명이다.

케이엠티는 ISO9001, ISO14001, ISO18001 등 각종 인증을 획득했고 규격에 적합한 제품으로 정성껏 시공한다는 방침을 실천하고 있다. LG화학, 금호석유화학, DL이앤씨, 여천NCC, 한화건설, 자이C&A, GS칼텍스 등을 고객으로 두고 있다. 이런 굴지의 기업들이 거래처가 된 데는 명경식 케이엠티 대표의 끈기와 집념이 담겨 있다.

그는 사훈을 ‘인일기백사-리부’로 정했는데 ‘남이 한 번 하면 나는 백 번 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 조그마한 이슬방울이 모여서 바다를 이루듯 끈기를 갖고 노력한다는 뜻이다.

명 대표는 지역사회봉사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2020년 출범한 여수시 민선 첫 체육회 회장을 맡으면서 여수시 체육 발전과 건강한 시민 체육 활동을 위해 힘쓰고 있다.



케이엠티 성실과 끈기로 석유화학 및 기계발전 플랜트 분야에서 꾸준히 성장하고 있으며 LG화학, 금호석유화학 등 국내 굴지의 기업을 고객으로 두고 있다.



IBK기업은행의 여수산단 입주 기업을 위한 금융 지원책

B2B 팩토링
판매 기업이 영업 활동을 통해 현금 대신 취득한 전자결제수단 중 최종 결제가 확실시되는 우량 채권을 담보로 저리의 대출(할인)을 해주는 상품이다. IBK기업은행이 선정한 우대 어음 발행 기업의 채권이거나 은행의 지급 보증이 있는 채권이 할인 대상이다. 판매 기업 입장에서는 낮은 금리로 현금에 준하는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동반성장협력대출
동반성장협력대출은 대기업 또는 공공기관의 협력 기업을 대상으로 해당 기관에서 예치한 예금을 활용해 협력 기업들에 저금리의 대출을 지원하는 상품이다. 중소기업은 기술 개발과 품질 향상에 더 많은 자금을 투자할 수 있고, 이는 곧 납품 대기업의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므로 대·중소 기업 간 자금의 선순환 구조를 기대할 수 있다.

IBK스마트등산담보대출
IoT 기술을 활용해 중소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기계 등의 동산을 담보로 필요한 자금을 지원해주는 대출 상품이다. 동산 자산의 담보 가치와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IoT 기술을 접목시킨 상품으로 자금이 부족한 중소기업, 특히 여수산단 내 부동산 등 담보력이 취약한 중소기업들의 자금 확보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

INTERVIEW



정태섭 IBK기업은행 여천지점장

여천지점은 여수산단과 가까운 거리에 위치해있고, 지점 주변으로 상권이 발달되어 있어 지점 중에서도 내점 고객이 많은 편에 속한다. 여수산단에는 플랜트 건설, 산업 청소 서비스, 산업폐기물 처리 등의 분야에서 3개월 혹은 6개월 단위의 단기 공사 위주로 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들이 많은 편이며, 이 가운데 자금력이 부족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금융 지원을 하고 있다. 정태섭 지점장은 “대기업의 추천을 받아 낮은 금리로 협력 중소기업들에 자금을 지원하는 동반성장협력대출 상품이 특히 호응이 좋다”며 “기존 거래 기업 외에도 신규 기업을 적극 발굴해 더 많은 기업들이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송광성 IBK기업은행 여수지점장

여수지점은 1961년 IBK기업은행 설립과 동시에 개점한 만큼 오랜 역사를 자랑한다. 여천지점이 여수산단 입주 기업들과 접점이 더 많다면 여수지점은 선박과 관광 분야의 금융 지원 비중이 높다. 여수산단 협력 기업들에 대해 금융 지원을 하기도 하지만 전체 여신에서 선박·관광 관련 산업 분야가 차지하는 비중이 50% 이상이다. 송광성 지점장은 “여수지점은 선박과 관광 관련 산업 금융에 특화된 점포로 특히 자금을 필요로 하는 중소 해운 기업들에 대해 과감하게 금융 지원을 하고 있다”며 “지금껏 그랬듯 사업성은 좋지만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기업들에 든든한 조력자로서 소임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백준기 행복한 일 노무법인 공인노무사
노무법인 유엔 공인노무사였으며, 그로서, 공공기관 협회, 금융권, 제조업 등 다수 조직에 대한 책임 자문을 맡고 있다.



챙겨야 할 2023년 고용노동부 예산안 주요 내용

지난 8월 30일, 2023년도 고용노동부 예산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본예산인 36조5,720억 원 대비 4.3% 감액된 규모인 34조9,923억 원의 총지출을 결정했다. 내년도 예산안의 골자는 코로나19 시기에 한시적으로 늘어난 예산을 정상화하고, 유사·중복 조정 및 제도 개선 등을 통해 투자 지출을 효율화하며, 절감된 재원을 취약부문 지원, 국민의 생명·건강 보호 지원, 훈련·취업 등 민간 일자리 창출 지원에 집중 투자한다는 계획이다. 2023년 고용 관련 지원 투자 방향에 대해 정리해본다.

2023년 고용노동부 예산안의 투자 방향은 크게 △첨단 분야 인재 양성, 고용 서비스 고도화 등 민간 일자리 취업 연계 지원 △저소득·취약 계층 고용안정 및 대상별 맞춤형 지원 강화 △산업재해 감축을 위해 취약부문 중심 집중 지원 △노사가 상생하는 공정한 노동시장 구축 지원 등이다. 그중에서도 특히 기업에서 알아둘 필요가 있는 예산 투자 방향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일자리 사업 효율화를 통한 자원 마련

위기 대응 예산을 조정하고 저성과 사업 구조조정 등을 통해 일자리 사업을 효율화해 미래 대비 집중 투자를 위한 재원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일자리 사업 성과 평가에서 '감액' 등급에 해당 사업들은 폐지·감액하고 고강도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감액 등급을 받은 사업 중 25개 사업을 감액해 약 8,159억 원의 예산을 감축한다. 특히, '고용유지지원금'의 예산이 올해 대비 4,007억 원 감액된 1,974억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올해 대비 7,658억 원 감축된 2,294억 원의 예산이 편성되었고,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의 신규 신청은 폐지된다.

또한 청년내일채움공제는 다른 청년 자산형성 지원사업 신설 등을 고려해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 및 청년의 장기근속을 지원하는 제도로 특화·개편해 올해보다 6,724억 원 감액된 6,375억 원의 예산이 편성되었다.

고용안정망 확충을 위한 예산 편성

① 저소득 근로자 지원

최저임금 인상, 높은 물가 상승률 등을 고려해 저소득 근로자의 사회보험료 지원 대상을 기존 월보수 230만 원 미만의 근로자에서 월보수 260만 원 미만의 근로자로 완화했다. 또한 예술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의 본인 부담분에 한해 사업 규모에 상관없이 10인 이상 사업의 경우도 사회보험료를 지원한다. 이러한 신규 지원에 포함되는 대상으로 약 17.5만 명이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았다.

② 출산급여 및 가사근로자와 1인 자영업자 지원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2022년 127.8억 원 → 2023년 155.7억 원), 올해부터 운영된 가사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2022년 16.8억 원 → 2023년 58.1억 원), 1인 자영업자의 고용보험료 지원(2022년 36.3억 원 → 2023년 50억 원)도 확대한다.

③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급 수준 상향

장애인 고용장려금의 지급 수준을 상향 조정(2022년 2,624억 원, 30만~80만 원 → 2023년 2,977억 원, 35만~90만 원)하고, 좋은 일자리 모델인 표준사업장을 확대해 장애인 고용을 촉진한다.

구분		2022년	2023년
경증 장애인	남성	30만 원	35만 원
	여성	45만 원	50만 원
중증 장애인	남성	60만 원	70만 원
	여성	80만 원	90만 원

④ 플랫폼 종사자 지원 확대

플랫폼 경제 활성화에 대응해 플랫폼 종사자의 일터 개선 및 실태조사, 특화 훈련 등의 지원을 확대한다. 구체적으로 플랫폼 종사자 보호 지원은 올

해 대비 1억 원 증가한 20억, 플랫폼 종사자 특화 훈련은 200억(20만 명)의 예산이 편성되었다.

⑤ 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 확대

고령자 고용지원금(2022년 54억 원 → 2023년 558억 원),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2022년 108억 원 → 2023년 268억 원)을 확대해 고령자의 직무 능력과 노후가 지속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⑥ 모성보호육아지원사업 확대

모성보호육아지원사업을 위한 예산을 올해 대비 1,673억 원 증가한 2조1,006억 원으로 편성했다. 구체적으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는 올해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937억 원 규모의 예산이 편성되었고, 육아휴직급여는 1조6,964억 원이 편성되었다.

⑦ 청년도약프로그램 도입

구직을 단념한 청년을 대상으로 자신감 회복 및 취업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중장기 특화 프로그램에 참여·이수한 경우, 도약준비금 300만 원을 지급하는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데 365억 원의 예산이 편성되었다.

⑧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 확충

직무 경험을 중시하는 채용 트렌드를 고려해 청년 일경험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을 대폭 확충한다(2022년 50억 원 → 2023년 553.3억 원).

⑨ 지역 산업 구인난 지원

지역의 고용 상황, 인력 수요 등 지역별 특성에 맞는 일자리 창출 사업인 '지역혁신프로젝트 사업'에 올해 대비 356억 원의 예산을 추가 편성한다(플러스사업* 신설).

* 플러스사업 (구인난 개선 지원) 예시

조선업 기존 청년 내일채움공제의 요건 완화(연령 19~34세 → 19~45세, 2년 근속 시 1,200만 원 → 공제금 1년 근속 시 600만 원) 및 초광역권 조선업취업센터 운영 확대 등.

뿌리산업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취업 알선 강화를 위해 전담 취업지원기관 설치 및 현장실습 참여자 수당(일 10만 원), 취업장려금(2년간 360만 원) 지급 등.



정현주 세무법인 세일 화성지점 대표세무사
전 IBK기업은행 기업지원 컨설팅부 수석세무사로 근무하며, 중소기업 가업승계 컨설팅을 100회 이상 진행한 바 있다.

국외전출자 국내 주식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제도

대주주인 거주자가 해외 이주 등으로 국외로 출국하는 경우 출국 당시 소유하고 있는 국내 주식 등의 평가이익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다. 실제 양도가 없어도 국외로 전출하는 시점에 주식의 평가이익을 양도소득으로 간주해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다. 이를 국외전출세 제도라고 하는데, 우리나라도 조세회피 방지 차원에서 2018년부터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국외전출세 제도에 대해 살펴보자.



1 납세의무자
국외전출일 전 10년 중 5년 이상 국내에 주소·거소가 있으며, 과세 대상 자산을 일정 비율 또는 금액 이상 소유하고 있는 대주주*에 해당하는 자 중 2018년 1월 1일 이후 출국하는 거주자(국외전출자)를 말한다.

*대주주요건

구분	지분을 기준	시가총액 기준
① 코스피	1%	10억 원 이상
② 코스닥	2%	10억 원 이상
③ 코넥스	4%	10억 원 이상
④ 비상장	4%	10억 원 이상 (벤처기업은 40억 원 이상)

2 과세 대상 주식
국외전출자가 출국 당시 소유한 국내 주권상장, 비상장 법인의 주식(신주인수권과 증권에탁증권 포함), 자산총액 중 부동산 자산 비율이 50%(골프장, 스키장업 등 80%) 이상인 법인의 주식이 과세 대상이다.

3 국외전출세 과세표준 및 산출세액 계산

양도가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출국일 당시의 시가(거래가액) 다만, 시가 산정이 어려울 경우 <ol style="list-style-type: none"> 주권상장 법인 주식 등: 출국일 당시 기준시가 주권비상장 법인 주식 등: ①, ②를 순차로 적용 계산한 가액 출국일 전후 각 3개월 이내에 해당 주식 등의 매매거래가액 출국일 당시 기준시가
- 필요경비	취득가액 및 양도비용 등
= 양도소득금액 - 양도소득기본공제	· 연 250만 원
= 양도소득과세표준 X 세율	과세표준 3억 원 이하: 20% (3억 원 초과: 25%)
= 산출세액	

4 신고납부기한
출국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5 납부유예
출국일부터 실제로 양도할 때까지 납부유예 신청이 가능하다. 출국일부터 5년(국외 유학의 경우 10년) 이내에 양도하지 아니한 경우 5년(10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납부유예를 할 수 있다. 이때 납세 담보를 제공하고, 납세관리인 지정도 필요하다.

6 납부한 세액 환급·납부유예 중인 세액 취소 사유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환급 또는 취소 신청을 할 수 있다.

- 국외전출자가 출국일부터 5년 이내에 국외전출자 국내 주식 등을 양도하지 아니하고 국내에 입국해 거주자가 되는 경우
- 국외전출자가 출국일부터 5년 이내에 국외전출자 국내 주식 등을 거주자에게 증여한 경우
- 국외전출자의 상속인이 국외전출자의 출국일부터 5년 이내에 국외전출자 국내 주식 등을 상속받은 경우

7 국외전출세 납부 절차
① 납세관리인 및 국내 주식 등 보유 현황 신고
국내 주식 등의 보유 현황을 출국일 전날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하며, 국내 주식 등의 보유 현황은 신고일의 전날을 기준으로 작성한다.

② 양도소득 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 납부
국외전출자는 양도소득 과세표준을 다음 기한 내에 신고해야 하며, 과세표준 신고 시 산출세액에서 감면·공제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관할세무서에 납부해야 한다. 납세관리인이 신고한 경우는 출국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납세

관리인이 미신고 시 출국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한다.

③ 주식 보유 현황 미신고 가산세
국외출국자가 출국일 전날까지 보유 현황을 신고하지 않거나 누락해 신고한 경우 다음의 금액을 산출세액에 더한다.

신고하지 않은 경우	출국일 전날의 국외전출자 국내 주식 등의 액면(출자)금액 × 2%
누락해 신고한 경우	신고일 전날 기준으로 신고 누락한 국외전출자 국내 주식 등의 액면(출자)금액 × 2%

④ 경정청구
조정공제, 외국납부세액공제 및 비거주자의 국내 원천소득 세액공제를 받으려는 자는 국외전출자의 국내 주식 등을 실제 양도한 날부터 2년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경정청구 할 수 있다.

⑤ 납부유예
국외전출자는 납세 담보를 제공하고 납세관리인을 신고한 경우 출국일부터 국외전출자의 국내 주식 등을 실제로 양도할 때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양도소득세 납부유예를 신청해 적용받을 수 있다. 납부유예를 받은 국외전출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국외전출자 국내 주식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이자상당액 가산)를 납부해야 한다.

납부 사유	납부 기한
출국일부터 5년(국외전출자의 국외 유학의 경우 10년) 이내에 국외전출자 국내 주식 등을 양도하지 않는 경우	출국일부터 5년(국외전출자의 국외 유학의 경우 10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국외전출자 국내 주식 등을 실제 양도 시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⑥ 재전입에 따른 환급
국외전출자가 앞서 설명한 세액 환급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사유 발생일부터 1년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한 세액에 대해 환급 신청을 하거나 납부유예 중인 세액의 취소를 신청해야 한다. 신청 받은 관할세무서는 지체 없이 납부세액을 환급하거나 납부유예 중인 세액을 취소해야 한다.

상호 존중·칭찬· 친화 경영 통해 시너지를 극대화하라

구강세정기 기업 아쿠아픽 이계우 대표의 경영의 핵심은 '창발적 사고'를 활성화하는 임직원 교육이다. 이 대표는 존중하고, 칭찬하고, 협동하는 것만이 직원의 사기와 창발적 사고를 높일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믿고 이를 위한 조직 문화를 만들어 나가고 있다.

필자는 구강세정기 기업 아쿠아픽을 창업해 대표를 맡고 있다. 본사는 서울 G밸리(구로 및 가산디지털단지)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가산디지털단지역 부근에 있다.

필자는 학교 졸업 후 독일계 회사에 다니다가 2001년 창업했다. 우리 제품은 국내 치과 1만5,000여 곳 중 1만 곳 이상에서 판매 중이며, 세계 50여 개국에 수출하고 있다. 이를 위해 세계적인 치과기자재 관련 박람회인 독일 쾰른의 '국제덴탈쇼^{IDS}', 세계 최대 소비재 무역박람회 '중국 캔톤페어' 등 각종 박람회에 참가하며 시장을 개척하고 있다.

비교적 짧은 기간에 시장을 개척하자 지인이나 기업인들이 비결이 뭔지를 묻곤 한다. 그동안 물론 기술 개발, 디자인 개발, 마케팅 등 수많은 노력을 쏟아 부었다. 이는 타사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우리는 조금 다른 면이 있다.

바로 임직원 교육이다. 핵심은 '창발적 사고'를 활성화하는 것이다. 사전에 보면 '창발^{創發}'은 남이 모르거나 하지 아니한 것을 처음으로 또는 새롭게 밝혀내거나 이루는 일을 의미한다. '생각'만으론 부족하고 '말'과 '행동'으로 옮기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다.

필자는 이를 경영에 적용하고 있다. 지난 20년 동안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게 임직원 교육이다. 필자 회사에는 약 200명이 들어갈 수 있는 첨단 강의장이 있다. 어디에 내놔도 빠지지 않는 시설이라고 생각한다. 이곳에서 매주 월요일 아침 30분 정도 최고경영자^{CEO} 메시지를 전달한다. 주요한 주제는 국내외 경제 동향, 우리의 대응 방안 등이지만 더욱 신경 쓰는 건 우리만의 기업 문화다. 여기엔 '존중', '칭찬', '친화' 등이 있다. 세일즈나 마케팅 등 구체적인 현업 얘기를 하는 게 아니다.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보자.

첫째, '상호 존중'이다. 어떻게 남을 존중할 것인가. 우리는 모두 '~님'으로 호칭한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서술어에 경어를 붙여 사용하게 된다. '~님 ~해주시겠어요'라는 식이다. 이를 통해 상호 존중의 문화를 만들어 가고 있다. 이러면 신입사원도 자존감을 높일 수 있다.

둘째, '칭찬'이다. 우리 회사엔 야단치는 문화가 없다. 오로지 칭찬만 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실천한다. '칭찬상'도 만들었다. 카카오톡이나 메모, 편지를 통해 '~가 바쁘데도 끝까지 일을 잘 처리해줘 칭찬합니다와 같은 내용을 보내는 것이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책도 있듯이 칭찬을 듣고 싫어할 사람은 없다. 업무 능률이 오르는 것은 당연하다. 칭찬상을 받은 사람에게엔 박수를 쳐주고 표창장과 부상도 수여한다.

셋째, '친화'다. 부서 간, 상하 간 벽을 없애는 것이다. 말이 쉽지 실제 조직 내에서 벽을 없애는 건 쉬운 일이 아니다. 베타이 매고 근엄한 분위기에선 벽을 허물기가 쉽지 않다. 우리 매주 1회 4인 1조로 임직원이 직접 직용용 점심식사 요리를 준비한다. 우리 회사엔 사내에 주방이 설치되어 있다. 이때 조편성이 중요하다. 무작위 추첨으로 4인 1조를 만든다. 신입사원과 임원이 한 조가 되기도 한다. 타 부서 사람들과 섞이는 것은 당연하다. 식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메뉴를 정하고 재료를 논의한다. 이를 신입사원이 주도할 수도 있다. 당일 모두 정장을 벗고 셰프 복장을 하고 요리를 준비한다.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벽이 허물어진다. 그 뒤 맛과 상차림, 참여도, 독창성을 심사해 1등을 차지하게 되면 그 조는 1박 2일 여행을 다녀올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 이때 회사는 숙박비 등 여행비용을 지원한다. 군에서 모범사병에게 특별휴가를 주는 것과 비슷하다.

이런 노력을 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 기업은 조직이다. 조직은 시너지를 내야 한다. 시너지는 '1+1=2'가 아니라, '1+1=3'이나 '1+1=10'을 만드는 과정이다. 조직의 시너지는 매우 큰 힘을 낸다. 하지만 내부의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고 협조가 되지 않으며 상호 존중을 하는 마음이 없으면 절대로 시너지를 낼 수 없다.

서로 존중하고 이해하고 소통하는 문화가 중요한 까닭이다. 자존감을 느끼고 자부심이 있을 때, 그리고 서로를 잘 이해할 때 이런 협조가 이뤄질 수 있다. 



이계우 대표

1970년 충남 청양에서 태어나 연세대 대학원(경제학 석사)을 나왔다. 독일계 치과기기 기업에서 근무한 뒤 2001년 아쿠아픽을 세웠다. 그는 첫술질이나 치간칫솔만으로는 구강 건강을 지키기 힘들다는 생각으로 구강세정기 기업을 창업했다. 2018년 대통령 표창, 2018년 서울특별시 표창을 받았다. 2020년 2월부터 사단법인 한국산업단지경영자연합회서울^{KIBA서울} 회장을 맡고 있다. 2년 임기의 회장을 연임 중이다. 그는 특히 직원 교육과 CEO 교육에 큰 관심을 갖고 있다.

“ 핵심은 '창발적 사고'를 활성화하는 것이다. '창발^{創發}'은 남이 모르거나 하지 아니한 것을 처음으로 또는 새롭게 밝혀내거나 이루는 일을 의미한다. '생각'만으론 부족하고 '말'과 '행동'으로 옮기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다. ”

이벤트

아쿠아픽은? 서울시 금천구 가산디지털로 171(SK V1센터)에 본사를 둔 구강세정기 전문 기업. 이 회사는 국내 구강세정기 시장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다. 국내 치과 1만 5,000여 곳 중 1만 곳 이상에서 팔리고 있다. 독일 쾰른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치과기자재 관련 전시회인 '국제덴탈쇼', 세계적인 소비재 무역박람회 '중국 캔톤페어' 등 각종 박람회에 참가하며 외국에 제품을 수출하고 있다. 2021년 매출은 150억 원이다.

M&A 중개·주선도 IBK와 함께

인수·합병M&A를 희망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매도·매수 대상 기업을 중개하고 전문적인 자문을 지속적으로 제공해 중소기업의 M&A 성사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IBK기업은행만의 M&A 중개·주선



- 신청 방법**
- 거래영업점
 - IBK기업은행 인터넷뱅킹
 - 전화접수
- 증명서·기업 지원 - 부가서비스 - M&A 중개·주선 신청
02-3425-4989
- 상담 가능 시간 평일 09:00~17:00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 주말, 공휴일 제외)

일상에선 개인카드로,
비즈니스 할 땐 법인카드로
경계 없는 CEO 라이프를
한 장의 카드에!

한 장의 카드로 두 가지 세상을 산다



CEO dual 카드 단 한 장으로 CEO의 일과 삶, 모든 순간 품격이 되다!

CEO의 라이프를 완성하는 혜택
Dual 개인카드와 기업카드를 한 장으로 결합

CEO 토탈서비스 골프, 여행 등 CEO가 선호하는 프리미엄 혜택 제공(개인)
Air Money 포인트 국내외 항공권·국내골프장 그린피 결제 가능(개인·기업)
기업카드로 결제해도 개인에게 포인트 적립

발급대상 : 개인 + 기업 지정자 * 단독발급은 개인카드만 가능

브랜드 및 연회비
Dual(개인+기업) Master 23만원, BC(국내전용) 22.4만원
개인 Master 22만원, BC(국내전용) 21.5만원
기업 Master 1만원, BC(국내전용) 0.9만원

* 자세한 내용은 IBK고객센터(☎1566-2566)에 문의

연체이자율: 회원별, 이용상품별 약정금리 + 최대 3%(법정 최고금리 20% 이내) * 단, 연체 발생 시점에 약정금리가 없는 경우는 아래와 같이 적용합니다. · 일시불 거래 연체 시: 거래발생 시점의 최소기간(2개월) 유이자 할부금리 · 무이자 할부 거래 연체 시: 거래발생 시점의 동일한 할부 계약기간의 유이자 할부금리 · 그 외의 경우: 약정금리는 상환상 상사법정이율과 상호금융 가계자금 대출금리 * 중 높은 금리 적용 * 한국은행에서 매월 발표하는 가장 최근의 비은행 금융기관 가중평균대출금리(신규대출기준) 상환능력에 비해 신용카드 사용액이 과도할 경우, 귀하의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개인신용평점 하락 시 금융거래와 관련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정기간 원리금(또는 대출금, 납부대금 등)을 연체할 경우, 모든 원리금을 변제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신용카드 발급이 부적절한 경우(연체금 보유, 개인신용평점 등 낮음) 카드발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카드이용대금과 이에 수반되는 모든 수수료를 지정된 대금 결제일에 상환합니다.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2-3750호(2022.07.22) 유효기간(2025.07.21) 여신금융협회 심의필 제2021-C11-05376호(2021.06.23) · 이 안내장은 2022.04.15일 현재 기준이며, 개별 상품에 관한 자세한 문의는 거래영업점 또는 IBK고객센터(☎1566-2566)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IBK기업은행은 금융·항우를 받지 않습니다. 윤리경영 위반 사실이나 개선이 필요한 경우 신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02-729-7490, ibkethics@ibk.co.kr)

* 금융상품 관련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일반금융서비스는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에 따라 일반금융서비스는 IBK기업은행으로부터 충분히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그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요즘 시국이 시국인지라
배달 손님이 많아졌거든요

근데 깜빡하고 포스기를 놓고 간 날에는
손님들도 불편하고
저도 기름값 두 배로 들고
참 난감하죠.

근데 IBK BOX POS를 다운받고 나서는
그럴 일이 없어졌어요

스마트폰은 늘 손에 들고 다니잖아요

내 폰을 POS기로

요즘 사장님을 위한 모바일 POS
IBK BOX POS



POS 모드

메뉴 관리, 테이블 주문 관리 등
일반 POS 기능이 모두 가능합니다



카드매출 입금확인

가게 매출이 카드사에 정상 매입되었는지,
대금 입금일은 언제인지 확인 가능합니다



간편결제 모드

금액 입력 후 결제할 카드나 스마트폰을
사장님 스마트폰 가까이 대면 결제 완료



일간 재무리포트

일별로, 시간대별로, 메뉴별로
판매현황을 즉시 확인 가능합니다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2-3135호(2022.06.16) 유효기간(2023.06.15) ※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서비스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에 따라 일반금융소비자는 IBK기업은행으로부터 충분히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그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문의는 거래 영업점 또는 IBK BOX POS 고객센터(☎02-729-7633)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IBK기업은행은 금품·향응을 받지 않습니다. 윤리경영 위반 사실이나 개선이 필요한 경우 신고해주시기 바랍니다. (☎02-729-7490, e-mail : ibkethics@ibk.co.kr)



지금 플리이스토어에서
IBK박스포스 앱 검색해보세요